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0호
2026년 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contact@snuaa.org

2026 병오년 謹賀新年



미주동창회장 신년사

‘지속가능한 동창회’ 결실 맺는 해



황효숙
제18대 미주동창회장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힘차고 역동적인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대 정신을 이어가고 계신 동문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제18대 미주동창회 회장단은 “Servant Leadership”을 핵심 가치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동창회, 세대를 잇는 유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미주동창회는 동창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을 정비했습니다. 회칙과 조직관리의 원칙을 정립해 조직체계를 강화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IT인프라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새로 구축한 SNUAA Web 플랫폼은 동문들이 어디서나 쉽게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무관리 방식도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했습니다. 미주동창회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사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부와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지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지부 회장단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부 간 경험과 노하우가 유기적으로 공유돼 서로에게 시너지를 유도하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지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부 간 창의적 협업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설립 목적 중 하나인 나눔 정신의 실현을 위해 지부의 사회 공헌 사업도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힘썼습니다. 각 지부의 자선 음악회 등 여러 문화 행사들이 미주 동문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만남의 자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미주동창회가 더 넓은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재무 · 조직 · IT 인프라 등 안정적 운영 초석

지부 회장단 회의 정례화, 창의적 협력 강화

젊은 동문 멘토링 · 창업 지원, 교류의 장 확대

“Minnesota Project II” 모교와 함께 국제협력

동문 간의 친선도모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단된 AI Discovery Club은 동문들이 매주 (Zoom) 으로 모여 Gemini를 비롯한 생성형 AI 활용법을 함께 배우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며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모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고문진은 동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골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친선 행사를 기획해 동문 간의 유대감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장학 프로그램 (SNUAA

USA Scholarship)을 대표하는 국제하계강좌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ISP)는 미주동창회와 모교가 협업해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의 학생은 2026년 서울대학교 하계강좌에 참여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학문적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의 학업과 커리어 발전에 의미 있는 자산이 되는 동시에, 미주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서울대에서 배움을 다시 미주 사회로 환원하는

세대를 잇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린 제34차 평의원회에서 “Minnesota Project”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속 가능한 미주동창회의 미래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때의 비전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선후배의 대화 프로젝트(멘토-멘티 프로그램)”로 첫 번째 실현된 워싱턴-미네소타 동문 간의 만남은 젊은 동문들의 커리어 발전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대-미네소타대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곧 실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의 대규모 학생 교환 프로그램인 “Minnesota Project II”가 큰 기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년간 동문들의 지적 교류를 이끌어온 Brain Network는 그 기능을 확장해, 동문들의 지적 담론을 충족시키는 SNUAA Forum과 젊은 동문들의 창업과 도전을 지원하는 Entrepreneurship Network로 재편되며 입체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변화의 정점에서, 2026년 1월 미주동창회는 「SNU Global Connect @ CES 2026」를 세계 최대 혁신의 무대인 Las Vegas CES에서 개최하며, 젊은 동문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교류의 장은 기술과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젊은 동문들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갈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다듬고 심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주동창회는 각 지부의 색깔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큰 비전 아래 서로 연결되고 힘을 보태는 구조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장학 사업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고, 국제 교류로 세계와 연결되며, 모교 및 총동창회와 협력해 상호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주동창회는 동문인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제18대 회장단은 지속적인 미주동창회의 성장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동창회보 구독자님들께서 동문 지인 중 아직 동창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께 다음 달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contact@snuaa.org) 또는 미주동창회 주소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대 총장 신년 인사

“개교 80주년 맞는 해
‘AI대학원’ 설립 추진”

유홍림
(정치학과 80)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교육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성장을 도왔으며, 학문 연구를 통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40만 명의 서울대 동문들은 우리나라의 도약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미주 동문들께서는 해외에서 서울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탁월한 역량과 열정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는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아온 교수신문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2025년의 사자성어로 뽑았습니다. 돌아해보면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모두가 주목해온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면서 대학과 우리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문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우고 서울대학교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대학 혁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첨단융합학부와 학부대학의 신설 등 초학제적 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전환 시대야말로 고등교육의 기본 가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창의

적이고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배움과 경험의 터전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소통·협업·공감 역량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년에 출범한 학부대학을 비롯한 초학제적 교육체제는 이러한 융합적 인재 양성의 기반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도 교육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핵심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삶 속의 배움을 실천하는 기숙대학 ‘LnL(Living & Learning)’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배움·교류·소통 공간인 ‘SNU Commons’의 핵심 거점으로 대학본부 1층을 개편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캠퍼스 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 가치 위에 미래 세대의 필수 역량인 AI 리터러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AI Native 캠퍼스’를 목표로 생성형 AI 캠퍼스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교육과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 개원을 목표로 ‘AI 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대학교가 국내외 AI 관련 인재 양성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미주 동문들께서는 지난해에도 모교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교를 향한 애정과 격려는 서울대학교 발전의 큰 힘입니다. 언제나 모교를 생각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여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교육입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개교 80주년을 맞는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 총동창회장 신년 인사

“미주동창회에 항상 감사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

김종섭
(사회복지학과 66)

사랑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 타지에서도 변함없는 서울대 정신을 이어가며 동문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서울대총동창회는 ‘보람찬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동문 사회의 기반을 한층 더 넓히고 단단히 다졌습니다. 특히 재학생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이 총 41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작년 한 해 연인원 1484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된 이 장학사업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를 응원하고 모교 발전에 동문이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기총회, 동문가족음악회, 홈커밍데이 등 굵직한 행사들이 활기 넘치게 진행됐고, 학술·지식 교류의 장인 조찬포럼과 수요특강, 국토문화기행 등도 큰 호응 속에 운영되었습니다. 공헌 활동과 모교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까지 어느 해보다 넓고 깊은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세계 곳곳에서 서울대인의 이름을 지키고 있는 동문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참여와 성원 덕분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주동창회는 우리 해외 동문조직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과 활력을 가진 모범적인 공동체로, 총동창회 역시 늘 특별한 감사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열린 제34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는 그러한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자리였습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진 그날, 140여 명의 동문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대의 뿌리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유홍림 총장님을 비롯한 본교 인사들, 그리고 미네소타대 관계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는 ‘서울대가 어떻게 오늘의 서울대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황효숙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박상근 동문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젊은 세대와의 연결, 디지털 기반 소통 강화, 기금 조성 확대 등 미주동창회가 제시한 비전은 총동창회가 지향하는 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회관 마련을 위한 매칭 펀드 제안에 동문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주 지역 곳곳에서 활약하시는 동문들의 헌신과 공동체 정신은 서울대인의 저력 그 자체입니다.

2026년은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총동창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체계적 확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교류 중심 행사의 확대 등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올봄 저의 임기가 마무리되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서울대 동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미주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더 큰 도약의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든든한 힘이 되어 서울대인의 전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故) 오홍조 7대 미주동창회장 장례식, 동문 사회의 추모 속에 엄숙히 거행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고(故) 오홍조 제7대 미주동창회장 장례식 참석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LA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주 전체 동문의 약 40%가 거주하는 남가주 지역을 미주동창회장이 직접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례식은 12월 5일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에 위치한 Rose Hills Memorial Park Skyrose Chapel에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와 남가주 총동창회장(會葬)으로 엄숙히 거행됐다.

황효숙 회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고인이 1999년 남가주 동창회장을 맡아 남가주 동문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데 힘썼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하며 미주



지난해 12월 5일 남가주 휘티어에 있는 로즈 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거행된 고 오홍조 제 7대 미주동창회장의 장례식에 많은 동문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장례식 참석 위해 LA 방문한 제18대 회장단 남가주 지부 동문들 만나 협력 방안 등 논의

전역 동문 조직을 체계화하고 모교와 미주동창회를 잇는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기렸다. 이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중시해 온 고인의 뜻을 미주동창회가 계승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효숙 회장은 장례식에 앞서 남가주 지부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주동창회와 지부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세리토스에 마련한 동창회 전용 사무실을 방문해 남가주 지부가 진행 중인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주동창회와 남가주 지부 간 협력 및 교류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 김종섭(문리대66)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채규환(법대 69) 남가주 총동창회장, 양수진(간호대 80) 남가주 차기 동창회장, 한홍택(공대 60) 미주동창회 IT담당 고문 겸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용필(문리대 66) 미주동창회 편집고문, 임동근 미주동창회 총무국장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모두 함께 하며 상호 간 신뢰와 유대를 더욱 돈독히 했다.

황효숙 회장의 이번 LA방문은 미주 동창회의 핵심 운영 기조 중 하나인 ‘지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확인한 의미 있는 일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주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남가주 지부와의 교류를 통해, 미주동창회가 지역 지부와의 협력을 조직 운영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음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글=임동근(농생대 대학원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

미주동창회 장학생 10명 최종 선발

6월 서울대 국제하계 프로그램(ISP) 참여 수업료 · 기숙사비 및 장학금 6,000불 지원

6월 평의원회서 수여식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모교와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국제하계 프로그램(SNU ISP) 장학생 선발’에서 총 10명의 장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미주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오는 6월24일부터 7월24일

까지 한 달 간 서울대 ISP 프로그램에 참여해 AI 공학부터 한국 문화에 이르기까지 30여개 강좌 중 관심 과목을 선택해 공부한다. 미주동창회는 이들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로 6000여 달러의 장학금을 현금 지급한다.

한홍택(공대 60 · UCLA 석좌교수) 장학위원장은 “2026년부터 장학 프로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새해 인사

모교로 맺어진 귀한 동문 인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되기를



박상근 (법대 75)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2025년 을사(乙巳)해는 가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미주 전역에서 활약하시는 동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모교의 명성과 전통을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학계, 산업계, 공공 부문, 예술·문화·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동문들의 성취는 개인 노력의 넘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미주 동문 공동체의 품격도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을 의미하는 병오(丙午)의 해로,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에너지의 해라고 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기운이 동문 여러분의 삶에도 흘러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꿈꾸시는 일들이 남김없이 열매를 맺고, 그 과정에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넘치는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배움을 나누었고, 미주라는 넓은 땅에서 다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로를 걸어왔지만 모교와 동문사회라는 공통된 뿌리는 우리를 하나로 이어 주는 아주 귀한 인연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인연이 더 깊은 우정과 신뢰로 자라나 동문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 모두에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새해 아침이 가져다주는 기대 속에 여러분의 하루하루 위에 새로운 은혜와 기회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여정 속에서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과 행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램을 서울대 국제하계강좌와 연계하여 신청자 수는 크게 줄었으나 성적과 에세이 등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선발됐다”며 “오는 6월 열리는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장학생들을 온라인(Zoom)으로 연결해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 장학생 선발에는 총 24명이 지원했으며, 각 지부를 대표해 신용남(뉴욕), 김광수(뉴잉글랜드), 이준수(시카고), 최인숙(휴스턴), 임준원(북가주), 임현민(워싱턴주), 최화진(조지아주), 문성인(미네소타) 동문이 장학위

원으로 참여해 엄정한 심사를 도왔다.

-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Gloria Cho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 ▶Arrim Jung (카네기 멜론 대학교)
 - ▶Isaac Kim (UC 샌디에이고)
 - ▶Joy Lee (노스웨스턴 대학교)
 - ▶Hannah Lee (UC 데이비스)
 - ▶Jennifer Lee (프린스턴 대학교)
 - ▶Matthew Lee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
 - ▶Lauren Lee (UC 버클리)
 - ▶Mia Martinez (노스웨스턴 대학교)
 - ▶Jaeyl Song (컬럼비아 대학교)

미주동창회 첫 '2000년대 학번' 종신이사 탄생

텍사스 이승화 동문(공대 03) 실버 종신이사 가입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첫 '2000년대 학번' 실버 종신이사 탄생했다. 주인공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이승화(전기공학부 03) 동문이다.

이 동문은 최근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미주동창회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곧바로 미주동창회 홈페이지(www.snuaa.org)를 통해 5,000달러를 기부하며 실버 종신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황효숙 회장이 이끄는 제 18대 미주동창회는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목표로 멘토링 프로그램인 '선배와의 대화'를 신설하고, 창업 동문들을 이어주는 '창업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젊은 피 수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00년대 학번 동문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주동창회의 미래를 밝히는 반가운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욱이 이승화 동문은 텍사스주의 전력 운영을 총괄하는 '텍사스 전력 신뢰성 위원회(ERCOT)'의 전력 계획 엔지니어로 재직하며 동시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돕는 컨설팅과 헤드헌팅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유학 당시 가장 충격 받았던 것은 우리의 자부심과 달리 한국인의 입지가 매우 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민자에게 네트워크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중국, 인도인들의 거대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보며 그들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승화 동문은 솔직한 소회도 덧붙였다. "미국에 서울대 출신이 이렇게 많은데 선배님이 취직자리 하나쯤은 연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동안 선배들에게 밥 한끼 얻어먹지 못했던 현실은 꽤나 실

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네트워크를 만들고 결심했다. 텍사스 A&M 대학 석사 후 취업과 영주권 취득, 내 집 마련까지 성공하며 안착한 그는 오스틴 대학(UT Austin) MBA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유튜브 채널 '글로벌 공대인' (www.Youtube.com/@globalengineer)을 개설했다. 미국 취업 노하우를 묻는 공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2021년 12월 첫 취업 성공 사례를 배출한 뒤 이듬해 10월 컨설팅 법인 Sanju LLC (www.glongineer.com)를 창업해 본격적인

“인터넷 검색 중 알게 됐다” 5,000달러 쾌척
50여명 멘토단 구성, 후배들 미국 취업 도와

“미국 내 엘리트 한인 네트워크 만드는게 목표
미주동창회 젊은 동문 영입 활동들에 큰 기대”

사업에 나섰다.

"제 전공인 전기공학 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멘토들을 모았습니다. 각 분야 상위권 기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은 현직자들에게 연락했고, 현재는 50여 명의 멘토단이 이공계 전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멘토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동문으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까지 약 200건의 미국 취업과 유학 성공 사례가 탄생했다.



이승화 동문이 한국 벤처기업협회의 초청을 받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로드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었다"며 "젊은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원원하는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황효숙 회장은 "이승화 동문의 자발적인 참여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동창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젊은 동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대 졸업 후 ROTC 장교로 임관하면서 특전사(3공수여단)를 자원해 주변에서 '또라이' 소리를 들었을 만큼 도전적이었던 이승화 동문.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던 '국내파'에서 이제는 미국 주류 사회의 엔지니어로, 또 후배들의 길잡이로 활약하는 그의 삶은 '글로벌 공대인'을 꿈꾸는 많은 젊은 공대인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 동문의 부인은 휴스턴 대학교 약대를 졸업한 약사이며 슬하에는 초등 학교 4학년과 킨더가든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승화 동문의 회사가 2025년 한국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유학 박람회에 참가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승화 동문 가족 사진.



“동문 한 분 한 분의 성원으로
함께 도약하는 미주동창회”

contact@snuua.org

시애틀에서 미주 전역으로... '지성의 가교' 된 SNU 포럼

2009년 1월에 시작했으니 햇수로 어느덧 18년째에 접어든다.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도 아니고 매달 한 차례씩 연간 무려 10번이다. 대충 계산해도 170여 차례에 달하는 세미나를 동문 한 명이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관해 온 것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김재훈(공대 72) 동문이 이끄는 'SNU 포럼' 이야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는 도서관을 빌려 지역 동문들이 함께 모여 강연을 들었다. 3시간의 모임 중 2시간은 강연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가벼운 점심 식사를 했는데 모임이 10여 년간 이어지면서 'SNU 포럼'은 동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가장 인기 있는 동창회 월례 행사로 됐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포럼이 석 달 동안 중단됐고 김재훈 동문은 고심 끝에 그해 7월 대면 모임 대신 '줌(Zoom)'을 통해 포럼을 재개했다.

직접 만나 공부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즐거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초청 강사와 참가 동문의 범위를 시애틀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도 넘는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멋지고 보람찬 일인데, 단지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어떻게든 20주년까지는 이 자리를 지켜보려 합니다.”

김재훈 동문은 “다행히 섭외 요청을 드리는 강사분들마다 기쁘게 수락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며 “지난 5년간의 강연자 리스트를 첨부하는데 책으로 엮어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수준이 높았다”는 말로 자부심을 드러냈다.

역대 강연자 면면을 살펴보면 그가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

이우일 박사(대한민국 국가기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와 김재만 회장(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이진형 박사(스탠퍼드대 생명공학과 교수), 문국상 박사(J.P. 모건 부사장), 박지웅 박사(시카고대 화학과 교수), 이수영 박사(KAIST 명예교수)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공을 전파해 한국과 아프간에서 국민훈장을 받은 권순영 NEI 재단 대표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헌신과 수고로 17년째 SNU 포럼을 이끌어온 김재훈 동문.

날개를 달고 미주 전역 동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지성의 가교'이자 공동체로 더욱 도약할 'SNU 포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포럼 참여 안내]

'SNU 포럼'은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서부 시간) 줌으로 열린다.

▶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j/5069639349?pwd=aDF2SUltK3ovRWxTVmVsOHhLTjdjdz09>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다.

▶ **문의:** 포럼에 대한 문의는 김재훈 동문 이메일(jkim1@ieee.org) / snuaa.org 로 하면 된다.

김재훈 동문 헌신으로 매달 한 번씩 17년 이어져 책으로 엮어도 손색없을 전문가들의 170회 강연 미주 어디서나 줌으로, 동문들 적극 참여 기대

넘어 미국 전역으로 넓힐 수 있었다. 남가주의 한홍택(공대 60)·위종민(공대 64) 박사, 시카고의 정호(공대 62) 박사, 샌디에이고의 오계환(공대 64) 박사 등이 강사 추천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더해 노명호 제16대 미주동창회장 재임 시절부터는 'SNU 포럼'이 미주동창회 사업이 되면서 포럼 내용을 미주동창회보에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지원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간 강사 리스트를 확정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고심의 시간부터, 강사가 결정되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주제 발표 내용을 정하고 강사 이력과 사진, 간략한 발표 내용을 받아 정리해 미주동창회와 지역 언론에 알리는 일은 여전히 오롯이 그의 몫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쓰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30불)를 담아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달의 포럼을 매듭짓는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다음 달의 포럼을 준비한다.

김재훈 동문은 아직 현역이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 기술연구소의 기술 이사로서 차세대 항공 기술 전략 수립과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막중한 본업만으로도 바쁜 삶이지만 그는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매달 포럼을 준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솔직히 힘들지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선뜻 말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2009년 1월 워싱턴주 동창회 신년하례회에서 대선배님이신 장석주(의대 47) 박사님의 제안으로 제가 시작한 일이기엔, 창립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

기업의 연구 개발을 이끄는 현장의 핵심 인력들도 다수 출연해 포럼의 깊이를 더했다.

“2026년 강사진을 구성하면서 미주 동창회 각 지부 회장님들에게 강사 추천을 부탁드렸으나, 아쉽게도 기대만큼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각 지부에서 한 분씩만 추천해 주셨어도 포럼이 더욱 다채로워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 2026년 포럼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동문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김재훈 동문은 “제가 기탁한 1000달러와 지역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5000달러의 기금을 만들어 10년 동안 거의 다 썼는데 다행히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SNU 포럼'이 명실상부한 미주동창회 사업이 됐다”며 다시 한번 미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여담이지만 김재훈 동문은 골프를 칠 줄 모른다. 쉬 없이 이어지는 봉사과 본업으로 배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애틀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세 차례 연임하고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과 워싱턴주 지부 동창회장을 역임한 그는 지금도 이사와 고문으로 그 단체들을 돕고 있고 후배들 멘토링에도 앞장서는 등 '봉사가 곧 생활'인 삶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그의 공로를 기려 대통령 표창(2008년)에 이어 국민훈장 모란장(2018년)을 수여한 바 있다.

김재훈 동문의 헌신과 수많은 강사진의 무보수 봉사로 이어온 지난 17년. 그러나 이제 미주동창회라는 든든한

SNU Forum 2026 Speakers and Topics	
1월	(Chicago): 이병주 (상대 74), “은퇴후의 성공적인 투자방법”
2월	(Seoul): 이용환 (hyBee Inc.대표 · 서울대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 (Wireless Networks for AIoT Services)”
3월	(Los Angeles): Dennis Hong (UCLA 교수), “인공지능 기반 자율 로봇 시스템 (AI Enabled Autonomous Robot System)”
4월	(Seoul):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5월	(Seoul):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6월	(Seattle): 황인수 (Google 수석연구원), “차세대 위성 통신 기술과 서비스”
7월	(Los Angeles): Ah-hyung Park (UCLA 교수, 공대학장), “신 탄소경제와 청정에너지 전환 (Carbon Economy and Clean Energy Transition)” – Need to confirm
8월	No meeting (장학금 수여, 여름야유회)
9월	(Seattle): David Oh (Amazon Web Services AI Specialist), “AI 산업별 활용사례와 적용 (AI Industry Use Cases and Solutions)”
10월	(Seoul): 서의호 (POSTECH 명예교수), “정보기술 (IT)을 이용한 전략정보시스템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11월	(Golden): 김지혜 (Colorado School of Mines 교수), “핵심광물 자원 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
12월	No meeting (연례 총회, 송년회)

2026년 새해를 맞아 각 지부 동문님들께 새해 소망과 계획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미주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문님들이 어떤 바람과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응답해주신 동문님들의 새해 소망을 소개합니다.

“보스턴에서 보낸 50년을 돌아보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세경
(약대 61·뉴잉글랜드)

2026년은 제가 미국에 온 지 60년, 보스턴에 정착한 지도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보스턴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그런 후 반백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됩니다.

보스턴에서 보낸 50년을 되돌아보는 「Memoir of My Life in Boston for the Past 50 Years」 라는 책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공한 책자가 아니라, 내 식구와 친지들, 또는 후세의 한인들이 읽어 보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성희
(사대 58·북가주)

하루에도 수 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 일생과 인생은 무질서 entropy와 유질서 syntropy의 연속, 새해에는 엔트로피를 예방하고 신트로피의 강화를 위해 매일 다짐 실행

- 3식 소식 정식 채식
- 4번 심호흡
- 5컵 물마시기
- 6번 감사의 말하기
- 7천보 걷기
- 8시간 숙면



조중형
(의대 63·시카고)

조지훈의 시 「산중문답」 에서 한 구절을 뽑아 제 신년 소망을 대신합니다.

“큰일 한다고 고장 버리고 떠난 사람
잘되어 오는 놈 하나 없데
소원이 뭐가 있는고
해마다 해마다 시절이나 틀림없으라고
비는 것 뿐이제”



정태영
(문리대71·뉴잉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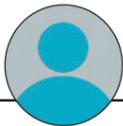
1. 지난 해 연말 다시 또 생일을 보냈다. “흐르는(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구나’ 라고 탄식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생각되었다.
2.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공간에 들어선다.” 광대한 은하의 휘오리 팔 안에 있는 우리는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매일 매일 새로운 시공간 속으로 날아 간다. 새로움은 새로운 개척정신을 자극한다. 미래 지향적이다. 반면 ‘흐르는 강물’ 은 과거 지향적이고 회고적이다.

올 해엔 좀 개척적인 생의 의지가 되살아났음 좋겠다. 뭘 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정리하는 개척력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찾아들면 비로서 날기 시작한다” 가 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윤정아
(생과대 소비자학과 95·북가주)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더 잘 알게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워진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덕수
(공대 건축학과 72·뉴잉글랜드)

제 새해 소망은, 저희 뉴잉글랜드 지부에 Part-time Paid 사무장님을 ASAP 모시게되길 기원합니다. 좋은 분을 모시어, 저희 지부가 아직 Join 못 / 안하신 수없이 즐기게 많은 동문들을 명부에 올려 성장하게 되면, Full-time Paid 사무총장으로 모시게될 앞날은 바라봅니다.



“내년 보스턴 마라톤 목표로 올해도 즐겁게 달릴 것”

김정필 (공대 기·뉴욕)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달리기'였다. 군 복무 시절, 10km 구보가 있는 날이면 늘 대열 끝에서 해매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 번은 부대 전체 달리기가 있었는데, 절반도 못 가 복통과 다리 경련으로 대열을 이탈해 부대장에게 크게 혼이 났던 부끄러운 기억도 있다. 평소 운동은 멀리하고 저녁마다 술잔을 기울이던 시절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내가 달리기엔 입문한 것은 12년 전이다. CBMC 강사로 오신 뉴욕 마라톤의 대부, 권이주 선생을 만난 것이 계기였다. 달리기로 당뇨를 극복하고 2011년 미 대륙을 횡단(LA~NY) 하신 그분의 열정에 감동해 그해 주말부터 리지우드의 새들리버 패스웨이에서 달리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3마일(약 5km)을 뛰는 것도 힘들어 걷다 뛰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참으로 정직하고 신기했다. 횡수가 거듭될수록 거리가 늘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당뇨 증상이 호전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등 몸의

12년 전 시작, 풀코스 10번 완주
아내도 부다페스트 첫 동반 출전
올해 포르투갈, 뮌헨 대회 거쳐
4분만 줄이면, 꿈꾸던 보스턴에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면서 운동의 효과를 체감하게 되었다.

달리기를 시작한 이들과 함께 '리달리아'라는 클럽을 만들었다. 사실 달리는 골프와 달리 단조롭고 고독한 운동이라 혼자 하면 지치기 쉽다. 하지만 클럽 동료들과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고, 이제는 주말 모임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는 '러닝 마니아'가 되었다. 덕분에 2년 전부터는 좋아하던 골프도 연 5회 미만으로 줄이고 주말엔 오직 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뉴욕 마라톤을 포함해 풀코스(26.2마일)를 10번이나 완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내와 함께 부다페스트로 '마라투어(Mara-tour)'를 다녀왔다. 아내는 생애 첫 10km 대회에 참가해 나와 함께 달렸고, 다음 날 나는 홀로 풀코스를 완주했다. 지난해 가장 보람찬 일이 무엇이나는 물음



지난해 10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마라투어'에 출전한 김정필 동문. 부인은 생애 첫 '10km 코스'에 도전해 완주했다.

에 망설임 없이 "10km 완주"라고 답하는 아내를 보며, 부부가 함께 건강한 취미를 공유할 수 있음에 큰 행복을 느꼈다.

우리는 이미 2026년 4월 포르투갈, 10월 뮌헨 대회를 목표로 다시 운동화 끈을 묶고 있다. 나의 개인 최고 기록은 4시간 44분이다. 보스턴 마라톤의 75세 기준 참가 자격(BQ)인 4시간 40분을 돌파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다. 2027년 마라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보스턴의 출발선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즐겁게 달린다.

“선배들의 간곡한 당부 잊지 않고 활기찬 동창회 만들 것”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 김인구(농대 87) 신임회장

한인 방송서 9년간 시사·뉴스 프로그램 진행

2026년부터 조지아 동창회를 이끌 김인구(농대 동물자원학과 87) 신임 회장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 한인 방송인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에서 9년간 매일 시사·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다. 인터뷰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그의 중후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는 그가 이끌 동창회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 주었다.

김 신임 회장은 “사실 동창회에 처음 맡을 들인 것은 2024년 여름이었

다”며 “당시 1년 반 정도 침체되었던 동창회를 살리기 위해 강창석, 김종구 선배님이 80년대 학번들을 모아 밥을 사주시면서 간곡한 부탁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암 투병 중임에도 뒤에서 도울 테니 앞에서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김종구 동문의 진심은 후배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에 최화진(음대 85) 동문이 먼저 회장직을 맡았으며 김 동문은 부회장으로 힘을 보태다 이번에 회장직을 이어받게 됐다.

그는 “기존의 정기 행사들을 내실 있



게 준비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고, 자랑스러운 동문을 초청해 20~30분간 패널 좌담회를 여는 등 유익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며 “새로운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

는 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998년, 서른의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다. 정착 초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는 시련을 겪기도 했고, 영주권 취득까지 14년이 걸렸을 만큼 고충도 컸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바이링구얼(Bilingual)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조지아 주지사, 연방하원의원 등 조지아의 정치·경제인사들과 좌담을 나눴고, 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현재 그는 상속, 트러스트(Trust), 프로베이트(Probate)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며, 최근에는 주택 매매 클로징과 교통법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후배 어우러지는 행복한 추억 쌓기에 최선을 다할 것”

샌디에고 동창회 오충훈(자연대 81) 신임 회장

ASML 엔지니어로 부인은 백경희(간호대 81) 동문

지난해 미주 서울대 동창회 중 가장 알차고 재미있는 활동을 펼친 곳을 꼽으라면 단연 샌디에고 지부를 빼놓을 수 없다.

3월의 화창한 토요일 맥주 양조장 투어를 시작으로 5월 봄꽃 야유회와 골프대회, 8월 포닥 후배들과의 맥주 모임, 그리고 9월 말 토요일 저녁, 박윤정(미대 62) 동문 자택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열린 미술 강좌까지... 여기에 11월 하이킹 야유회와 12월 송년

파티가 더해지며 샌디에고 지부의 일정은 한해 내내 활기차게 이어졌다.

행사를 마치고 후기로 올라온 사진들에는 어김없이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동문들이 등장하고, 동문들 얼굴에는 “만나서 정말 즐겁다”는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샌디에고 지부의 오충훈(자연대 물리학과 81) 신임 회장은 “샌디에고 동창회는 공식 일정이 잘 잡혀 있고 음악회, 미술 강좌, 별보러 가기 등 소구



모 번개 모임도 간혹 열리고 있다”며 “현재 일정을 무리없이 이어가는 것이 일차적인 바람”이라고 전했다.

오충훈 회장은 현재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ASML에서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다.

“사실 제가 한 번에 여러가지 일을 잘 하는 편도 아니고 여기저기 쉽게 전화를 돌리는 성격도 못 되어 동창회장이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지만, 90학번 후배들은 사회에서 한창 바쁘게 일할 나이이고 누군가는 이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어 그는 “동창회의 가장 큰 매력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인 만큼, 선후배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오 회장은 1988년 물리학과 석사 졸업 후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물리광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 백경희씨(간호대 81)와는 동문 부부다.

총무·재무·감사하며 오랜 기간 봉사해온 ‘준비된 리더’

시카고 동창회 이동균(공대 75) 신임 회장

“동창회날 기다리도록 정성 다해 모임 이끌 것”

2026년 시카고 동창회를 이끌 이동균(공대 75) 신임 회장은 그간 총무, 재무, 감사 그리고 부회장 등 여러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오랜 기간 동창회를 위해 수고해 온 ‘준비된 리더’다.

이동균 회장은 “동창회에서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 인연을 맺고, 서로의 생각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며 “제가 그랬듯 동문들이 동창회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임을 이끌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시카고 동창회는 전임 회장님들의 헌신 덕분에 연례 행사들이 전통을 지키며 잘 계승돼 왔고, 특히 시니어 모임인 골든클럽은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관악클럽을 비롯해 여러 취미 소모임들도 적극 지원해 시니어부터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활기찬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카고 동창회는 2025년 기준 이사회비 및 동창회비 납부자가 140명에 달하고 일반 경비와 장학 후원금이 1만 달러를 웃돌 정도로 든

한 재정과 조직을 자랑한다. 매년 10명 내외의 장학생에게 1인당 3,000달러를 지급할 정도로 장학 사업 역시 안정적이다.

이 회장은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 시카고 한인문화원 등 지역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동문들이 많다”며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창회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를 거친 이 회장은 1985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디트로이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시카고 교외에 있는 폴리우레탄 타이밍 벨트 제조 회사에서 화학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다.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백승환(공대 01) 동문의 유니아이

닭·돼지도 AI가 관리하며 키우는 ‘스마트팜’ 개발

축산업에 인공지능 접목 식품 기업들과 파트너십

지난 12월 9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정기 모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농업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문 기업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모임은 회원사들의 근황 공유로 시작됐으며 곧 백승환 동문(공대 01)이 이끄는 유니아이(UNiAI)의 발표로 이어졌다.

백 동문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기계공학 석사, KAIST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뛰어들었다.

유니아이가 개발한 대표 솔루션 ‘치킨몽거(ChickenMonger)’ 플랫폼은 닭과 돼지 농가의 축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특히 AI 기반 체중 예측과 질병 예측 기능을 통해 축사 관리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백 동문은 현재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여러 가금 계열사 및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LG U+, 체리부로, 마니커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아이의 사업 영역은 스마트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울증 진료 보조 AI 어시스턴트를 통한 정밀 의료 서비스, 컨테이너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로봇 및 임베



유니아이 대표이사 백승환 동문.

디드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 AI 정확도, 그리고 축산업의 생산성 개선 효과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특히 전통 산업인 축산업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실제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관으로 2026년 1월 7일 저녁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SNU Global Connect @ CES 2026’ (<https://snuaa.org/globalconnect>) 행사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세계 최대 기술혁신 전시회인 라스베가스 CES에 참가하는 서울대 출신 기업인들과 미국과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동문들이 모여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서울대 공대 학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교수진도 참석할 예정이다. 창업네트워크의 여러 회원들이 이 행사의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넷 회원들



Our Objectives

- Strengthen Network**
Solidify the bond between SNU alumni entrepreneurs across the globe at the world's largest tech stage.
- Support Startups**
Provide tangible support and mentorship to SNU startups entering the fierce global market.
- Expand Globally**
Promote active collaboration among alumni to facilitate global market expansion.
- Share Insights**
Exchange cutting-edge innovation insights and build a robust SNU business ecosystem.

Event Program

- 18:00-19:00
Registration & Reception
- 19:00-19:20
Opening Ceremony
- 19:20-21:00
Dinner Session & Pitches
- 21:00-22:30
Open Networking



Hosted by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SNUAA USA)
Supported by SNU Alumni Association (SNUA)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라스베가스 CES가 열리는 기간 중인 1월 7일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에서 ‘SNU Global Connect @ CES 2026’ 행사를 개최해 미국과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동문들이 모여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CES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이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한다.

창업네트워크는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동문 기업들이 경

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AI 디스커버리 클럽’ 통해 AI 배우는 즐거움



김현영 (수의대58 ·필라델피아)

“고장난 화장실 변기, 사진 찍어 올려서 해결
과테말라 농촌 개발 사역에도 응용할 방침”

저는 미주동창회 AI 디스커버리 클럽에서 AI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익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쓰기에 AI를 사용해 오긴 했지만, 저는 초보자였습니다. 첫 수업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핵심 개념은 ‘프롬프트(Prompt)’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

니다.

그런데 AI 분야에서 프롬프트는 사람과 AI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프롬프트란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질문, 명령, 설명 등 모든 입력을 의미합니다. AI는 사람의 의도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며, 오직 사용자가 제공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는 분야까지 생겨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AI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AI를 배우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활용한 것은 줌(Zoom) 회의 때 제 얼굴 뒤의 배경 사진과 글자를 원하는 대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AI 덕분에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마침 집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나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변기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 AI에 입력하고 고장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물어보았더니, 변기 제조사 이름부터 구체적인 수리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의 표지를 촬영해 입력한 뒤, 내용 요약과 철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을 요청해 보았습니

다. 그런데 AI가 저자인 저보다도 핵심을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보고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재 과테말라의 가난한 마야 원주민 농촌 마을에서 현지인을 포함한 전문인 10여 명으로 구성된 NGO를 통해 총체적 농촌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 전략 중 하나인 ‘하이브리드 비거주 Here & Now 선교’에 AI를 응용하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사역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금(Now) 여기(Here)’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실시간 사역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AI 강좌를 통해 한홍택 교수님을 만나 AI를 배우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교수님은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귀한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1400원대 수개월째 원달러 환율, 왜 안떨어지나



윤기향 (법대 65)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
경제학과 종신교수

한국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지난 9월 24일 1400원대를 돌파한 후 환율은 좀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12월 22일에는 1480.80원까지 상승함으로써 원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Maginot line)인 1달러당 1500원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고환율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가지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고환율의 영향과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한국의 경제 규모(GDP)는 2026년 세계 15위로 내려 앉을 전망이다 (IMF 추정).



1500원도 위협, IMF 위기 이후 최고 환율 대미무역 6년간 흑자인데 원화 약세 왜? 기업들 수출로 번 막대한 돈, 달러로 축적 GDP의 30% 넘는 돈, 미국 주식시장으로

원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국력(특히 경제력)을 상징한다. 국력이 튼튼하고 경제력이 탄탄할 경우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경제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 특히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면 푸대접을 받지만 그렇다고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즉,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반길 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고물가가 경제의 두통거리일 경우 '강한 통화'(저환율)가 바람직하지만, 수출이 줄고 실업이 늘며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약한 통화'(고환율)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했다고 하자. 이 경우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자동차, 커피 원두 등)이나 서비스(해외여행, 해외 유학 등), 그리고 원자재(원유, 부품 등)의 국내 가격이 오르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입 상품, 서비스, 원자재의 비중이 높을수록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물가에 미치는 측면에서 보면 고환율(환율의 상승)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상품의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 그 반면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환율은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로 환율의 상승은 무역수지를 개선시킴으로써 한 나라의 국민소득(GDP)을 증가시키는 데 효자 노릇을 한다. 순수출(수출-수입)은 GDP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또한 한 나라의 GDP가 증가하면 당연히 고용도 늘어난다. 이와 같이 환율의 상승은 그 나라의 소득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원화 가치의 상승(환율 하락)과 자산 가치(주가)의 상승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다. 한 나라의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나라의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역도 타당하다. 즉 한 나라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나라의 환율은 하락하는(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지금 한국

에서는 주가와 환율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외환(주로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환율 결정 메커니즘은 조금 복잡하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환율은 장기적인 요인, 중기적인 요인, 그리고 단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결과물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환율은 두 나라 간(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물가 수준(또는 인플레이션)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이고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4%라고 한다면, 미국 달러화의 실질 가치는 연간 2%가 하락하지만 한국 원화의 실질 가치는 연간 4%가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 1달러는 보다 많은 원화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지난 5년(2020~2025) 동안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98%였고, 한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2.73%였다. 이와 같이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경제 이론은 장기적으로 원화는 달러에 비해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무역수지의 동향이다. 한 나라(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경우

보다 많은 달러가 한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증가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즉 환율에 대한 하락 압력이 강해진다.

지난 6년간 미국의 무역수지와 한국의 무역수지를 비교해 보면 이 역시 미스터리이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6년 동안 계속 적자를 시현했으며 누적 적자액은 4조 218억 달러에 달한다. 그 반면 한국의 무역수지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누적 흑자액은 1,336억 달러였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의 관점에서 보아도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해야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간의 환율을 결정하는 단기적인 요인은 두 나라 간의 금리 차이이다. 한 나라의 금리 수준을 대표하는 것이 기준금리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5년 12월 20일 현재 연 3.50~3.75%이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고환율은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과 수익률 격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한국의 고환율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한국의 자본시장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된 이후 한국은 자본 거래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했으며, 그 결과 한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자본은 높은 금리를 쫓아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로부터 벌어들인 달러의 많은 양이 자본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어 왔다. 이는 한국 외환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어 원화 가치의 하락(환율의 상승)에 기여한 요인이 되었다.

거기에도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은 불장(뜨거운 장세)을 보여 온 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힌 횡보를 이어 왔다.

KOSPI 지수는 2021년 6월 25일에 기록한 최고점(3,316.08)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11일 3,344.20을 기록함으로써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전 기록을 넘어섰다. 그동안 '서학개미'로 불리는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국민연금 포함)은 한국 주식을 외면하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으며, 한국 GDP의 30%가 넘는 금액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 10년 동안 3,500억 달러(그 가운데 2,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달러화가 그만큼 미국으로 유출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에도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달러화가 계속 강세 추세를 보이자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달러를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에 풀리는 달러화의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의 고환율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강하고 달러화의 공급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이지만,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인상하면 달러화의 해외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는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연체 증가라는 경제적 난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은 아닌 것 같다.

한국 경제는 지금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고물가가 걱정되고, 저환율을 유도할 경우 경기 침체와 실업이 걱정된다.

시카고 지부 골든클럽

시카고 동창회 산하 골든클럽은 시니어 동문들의 모임으로, 매달 월례회를 열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중 한 차례 1일 관광과 한 차례 4박 5일 장거리 여행을 기획하는 등 2025년 한 해 동안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의 참여율도 눈에 띄게 높아 월례 모임마다 적게는 65명에서 많게는 85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콜로라도 록키마운틴 4박 5일 여행에는 동문과 배우자 등 총 48명이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동창회 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시카고 골든클럽의 안창혁(사대 65) 회장이 2025년을 마무리하며 회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다른 지부들과 공유하기 위해 소개한다.

매달 월례회 열고 다양한 주제 강연 ... 회원 80여명 참석



안창혁 (사대 65)
시카고 골든클럽회장

2024년도 골든클럽 부회장직을 마치고 2025년도 회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시카고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사정도 잘 모르는 제가 과연 골든클럽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염려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잊고 계 같은 출발이 벌써 1년이 지나 12월 4일 Holiday Luncheon을 끝으로 회장직을 차기회장 전현일 동문(농대62)께 인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 한 해 함께 수고해 주신 임원진—심태식 부회장(문리대69), 이병주 총무(상대74), 지옥희 재무(간호대69), 김영원 섭외(사대67)—모두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도 차기회장을 맡기를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골든클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 주신 전현일 동문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직을 시작하며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1. 70—78학번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 확대
일부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이병주(상대74) 동문이 임원직을 수락했고, 이건홍(공대75) 동문이 7월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수의 70—78학번 동문들이 4박 5일 콜로라도 여행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많은 70—78학번 동문들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 활성화
올해는 월례회 장소인 BBQ Garden의 좋은 Audiovisual System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우 풍성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월례회는 매회 65—85명이 참석하여 식사와 친교, 그리고 유익한 세미나로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1월: 이병주(상대74) '은퇴 후 성공적인 투자 방법'
- 2월: 이건정(공대69) '남극 기행과 탐험 이야기'
- 3월: 장기남(문리대62) · 안창혁(사대65) '근사 체험: 이론과 간증'
- 4월: 김동희(공대66) '추사의 세한도'
- 5월: 김영원(사대67) 'Is AI a Blessing or a Curse?'
- 7월: 이건홍(공대75)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지난해 12월4일 열린 마지막 월례회에는 모두 104명의 회원이 참석해 동문들의 춤과 노래, 장기자랑, 게임 등 여흥을 즐겼다.

- 8월: 이영우(문리대66) '베토벤의 교향곡'
 - 9월: 연경자(약대 65) '마리화나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
 - 10월: 윤봉수(간호대 69) '강릉이 낳은 이조 중기 두 여류 문예인의 이야기'
- 모든 세미나가 유익하고 다양하여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 회원 연령을 고려한 장·단기 여행 기획
연로해지는 회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Short Trip은 시카고 다운타운 1일 관광으로 진행했고, 52명이 참석했습니다. Long Trip은 덴버 한 호텔에 머물며 4박 5일 동안 록키마운틴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았으며, 48명의 동문들이

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회원 배우자의 적극적 참여 및 회비 납부 독려
골든클럽 회원과 배우자들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회비 납부를 권장해서 올해는 총 134명의 회원 및 배우자가 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회비는 주로 Short Trip과 Holiday Luncheon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 12월4일 Holiday Luncheon
지난해 12월 4일 Holiday Luncheon은 월례회 장소인 BBQ Garden에서 열렸으며, 총 104명이 참석했습니다. 풍성한 식사를 즐긴 뒤 임원진이 준비한 디저트·포도주·커피·스낵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후에는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고, 이어 임원들이 합동으로 춤과 노래를 선보여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박광덕(음대 61) 동문의 창, 연경자(약대 65) 동문의 빙고 게임, 이병주(상대74) 동문의 넌센스 퀴즈, 안창혁 동문의 사진 맞추기, 심태식(문리대69) 동문의 장기자랑 인도 등 풍성한 여흥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환(공대71), 한의일(공대62) 부부, 심태식 부부의 노래, 김승주 동문의 섹스폰 연주 후 참석자 전원이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을 합창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04명이 함께 한 단체사진을 소진문 (치대 58) 동문이 찍으며 2025년도 골든클럽 활동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12월7일엔 시카고 지부 총회 및 연말 파티



지난해 12월7일 열린 총회와 연말 파티에 참석한 시카고 동문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12월7일 시카고 북서쪽 샴버그(Schaumburg) 골프클럽에서 열린 지부 총회 및 연말 파티에는 동문과 가족 98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교가 제창에 이어 고

인이 된 동문 추모 묵념, 사업·재무·감사·장학기금 관리 보고, 장학생 12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가 있었다. 또한 이동균 차기 회장의 인사와 임원진 소개가 이어졌고, 차차기 회장의

로 윤봉수 동문이 선출, 인준을 받았다. 2부 저녁식사에 이어 황찬주 동문 주도로 한국 가요와 함께하는 댄스 등 즐거운 여흥이 펼쳐졌다.



송년회의 하이라이트가 된 미니 음악회에 출연한 동문들. 지난 7월 창단된 동문 남성 4중창단과 피아노 반주를 맡은 한범희 동문의 부인 임종선님, 독창으로 음악회를 시작해 4중창단과의 '오! 거룩한 밤' 앙상블로 무대를 장식한 심희진 동문, 캐럴 싱얼롱을 이끈 김영석 동문이 무대를 마치고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다. 오른쪽은 게임을 즐기고 있는 동문들.

감사를 나누고 추억을 쌓고 감동의 미니 음악회까지

필라델피아 지부

서울대학교 필라델피아 동창회 송년 모임 및 음악회가 지난 12월 13일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 권단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공사 허가 문제로 장소 변경을 해야 했는데, 연합교회 측에서 흔쾌히 본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이 이미 본당을 가득 채우고 있어 동문들은 마치 준비된 무대에 오르는 듯한 따뜻하고 감사한 분위기 속에서 연주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합교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송년 모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격려를 나누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문들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담소를 즐겼고, 유미영 동문(음대 87)이 진행한 재미있는 게임과 경품 추첨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따뜻한 새해 덕담으로 모임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심희진(



지난 12월13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린 송년 모임 및 음악회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동문 남성 4중창단 '사랑으로' 부르며 첫선 보여 심희진 교수 독창에 김영석 교수의 캐럴 싱얼롱

음대 90) 교수의 아름다운 독창을 시작으로 4중창단의 「사랑으로」, 「바람의 노래」, 그리고 김영석 교수의 흥미로운 「크리스마스 캐럴의 유래와 Carol Sing Along」으로 이어지며 「고요한 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함께 부른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은 필라델피아 동창회 최초로 동문 남성 4중창단이 정식으로 데

뷔하는 뜻깊은 무대였다. 지난 7월 새로운 임원진 구성과 함께 창단된 4중창단은 정동훈(수학과 72), 전방남(상대 73), 한범희(화학과 82), 조민규(화학과 95) 동문으로 구성되었다. 한범희 동문의 부인 임종선님이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맨스필드 대학 음대 교수를 지낸 김영석(음대 74) 회장이 음악 지도를 맡았다. 음악회는 심희진 독창과

남성 4중창단이 함께한 「오! 거룩한 밤」으로 마무리 지었다.

해리스버그에서 두 시간을 운전해 참석한 김현영(수의대 58) 동문이 송년 모임 후 지부 동문 단독방에 올린 글로 이번 후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제 송년 모임은 정확히 3시간 동안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된 행사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멀리서 참석한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배려로 선물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송년 모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김영석(음대 74) 지부 회장

경품·장학금·강연까지...풍성했던 연말 총회

미네소타 지부

미네소타 지부는 지난해 12월 6일 동문과 가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네소타대학의 Coffman Union에서 연말 총회를 개최했다. 많은 동문들이 미네소타 대학이 있는 트윈시티 지역에 거주해 연말 총회는 항상 대학에서 개최하고 있다. 참석자의 약 3분의1이 미네소타대로 유학 온 동문 대학원생 및 포스닥과 가족들로 미네소타 지부는 젊은 동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저녁식사와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미네소타 지부는 동문 대학원생과 포스닥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 덕분에 젊은 학생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학생 동문들은 연말총회에서도 장소 예약, 현장 접수와 장소 세팅 등 굵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장학금 전달식 이후에는 송창원(문리대 53) 박사가 서울대의 형성 과정



지난해12월 6일 열린 연말 총회에 참석한 미네소타 지부 동문들. 참석자의 3분의1인 동문 유학생 대학원생과 포스닥, 가족들이다.

과 배경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는데 관악 캠퍼스 세대들에게는 신선한 내용들이었다. 강연 후 조성구(의대59) 박사가 부가적인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단과대학을 다닌 관악 이전 세대의 선배님들이 왜 단과대학에 애착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특별강연에 이어 모두가 좋아하는 경품 추첨시간이 있었는데 지부에서 준비한 경품 외에도 일부 동문들이 선물을 가져와 올리는 모든 참석자가 경품을 받는 풍성한 경품 잔치가 됐다.

15대 미주동창회장을 지낸 신응남 고문은 휴대폰용 스피커 10대를 후원했고 조성구 박사는 현장에서 1000불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권식(공대61) 박사는 2025년 1만5000불의 일반 후원금을 쾌척해 지부 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새해에 다시 만나길 약속하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글=문성인(공대 88) 지부 회장



지난해 12월6일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연말 파티에 참석한 워싱턴 D.C. 지역 동문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동문 합창단, 히트 팝송 메들리로 행사 열기 더해

워싱턴 D.C. 지부

워싱턴 D.C.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2025년 12월 6일(토),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에 위치한 웨스틴 호텔에서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9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말 모임에서는 2025년도 동창회 활동 보고와 정기 총회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이어져 온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동창회의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행사 중에는 동문과 배우자들로 구성된 동문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평소 정기적인 연습과 친목 활동을 이어 온 합창단은 1970~80년대 히트 팝송

동문 유학생 · 동문 자녀들에 장학금 수여
김지인 동문(기악과 15) 피아노 연주 ‘감동’

메들리를 율동과 함께 선보이며 연말 파티의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김지인 동문(기악과 15 · 피바디 음대)의 피아노 연주가 펼쳐졌다. 쇼팽의 「녹턴 No.2」,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No.3」, 쇼팽의 「프렐류드 No.1」, 카푸스틴 「콘서트 연습곡 No.7」이 연주되었으며, 특히 모차르트 곡은 김지인 동문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학 후 지도 교수에게 처음으로 지도를 받았던 작품이라는 설명이 더해져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이후 게임과 라플 추천 시간은 이준(

환경 94) 동문과 박성희(환경계획 20)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웃음과 환호가 이어졌다. 2025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김지인 동문(기악 15 · 피바디 음대), 김준수 동문(기계 07 · University of Michigan), 강형석(기계공학 86) · 황태윤(영어교육 91) 동문 부부의 자녀 강현준(Johns Hopkins University), 전지현 동문(약대 93) 자녀 김지수(University of Virginia), 오재환 동문(물리교육 85) 자녀 오유진(George Mason University), 양태현씨(21).



이날 워싱턴DC 동창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김지인 동문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행사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간의 유대와 나눔을 이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취재=한정희(미대 81·편집위원)

90대 대선배부터 20대 유학생까지... 함께 보낸 뜻깊은 송년

조지아 지부

동문 · 가족 100여명 참석
새 회장에 김인구 동문 선출

서울대 조지아 동문회는 지난 12월 13일 존스크릭에 있는 이관 이벤트센터에서 제24대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대 중반의 젊은 유학생 동문들부터 90대의 대선배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해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총회에서는 최화진(음대 85) 제24대 회장의 임기 보고 후, 2026년부터 동문회를 이끌 제25대 회장에 김인구(농대 동물자원과학과 87) 동문이 추대돼 참석자들의 동의를 통해 선출되었다. 또한 동문회 발전에 꾸준히 헌신한 강창석(의대 73) 동문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들의 장기자랑과 동문 자녀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의 특별 연주가 펼쳐졌으며, 다양한 게임과 경품 행사가 더해져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글=최화진(음대85) 지부회장



조지아 동문들이 지난 12월13일 정기총회와 송년 모임을 열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올해 특히 젊은 유학생 동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창석 동문이 김인구 동문의 기타 반주로 '아침이슬'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임천빈 동문 부부의 즐거운 모습. 아기를 데려온 신희선(공대 97•맨 왼쪽) 동문과 젊은 동문 가족들. 최흥수(자연대 87) 동문 부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90명 동문·가족 참여 ... 트리 앞 가족사진 촬영도

샌디에고 지부

한 해의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마지막 행사까지 마치고 나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2025년 송년회는 12월 7일, Rancho Bernardo에 위치한 the Heights Golf Club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행사를 치렀던 장소이지만, 연말 분위기 속에서 다시 찾은 골프클럽은 한층 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54학년부터 19학년에 이르기까지 90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해 행사는 성황리에 마쳤다.

날씨가 허락한 덕분에 많은 동문 가족이 테라스에서 골프장 전경을 바라보며 와인과 간단한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대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된 대형 배너와 입구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송년 모임에 참석한 샌디에고 동문들. 54학년부터 19학년에 이르기까지 90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했다

심상철 동문과 김주성 동문이 사진 촬영을 위해 수고해줬다.

이후 지정된 좌석에 따라 스테이크와 연어를 주요리로 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후에는 2025년 우리 곁을 떠난 이진화 여사와 손명세 동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박상호 회장의 진행으로 한 해 동안의 동문회 활동을 간

단히 돌아보았다.

2부 순서에서는 최흥수 동문의 사회로 게임과 래플 행사가 이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품권이 준비된 조별 대결에서는 년센스 퀴즈, 청개구리 가위바위보, 노래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래플 추첨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다. 2025년 동문회 장학금은 19학번 정운제 동문에게 전달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은 2026년 신임 회장단 소개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2026년 동문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글=김상태(공대 96) 지부 부회장



워싱턴주 동문들이 지난해 12월13일 이명자 동문 자택에서 열린 송년 잔치에 모였다. 라인댄스 안무를 연습해 선보이고 있는 동문들.



노래·춤·게임에 풍성한 성찬까지 ... 흥겨운 송년 잔치

워싱턴주

2025년 12월 13일 이명자(간호대74) 동문과 이재선 회장의 후원으로 이명자 동문 자택에서 풍성한 송년 잔치가 열렸다.

이정관(농대 83) 회장의 인사말로 총회를 시작하였으며, 이어 현 장학회장 이명자 동문과 신임 장학회장 정은구(치의예 92) 동문의 이취임 발표가 있

었다.

이명자 장학회장은 2025년 동문들이 총 3만8245.50달러를 새로 후원해주었고 총 5명의 학생에게 각 10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했음을 보고했다.

동문 인사 순서에서는 지난 9월 100세 생신을 맞은 장석주(의대 47)·김옥영(문리대 52) 부부 동문이 아들 내외와 함께 참석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 큰 감동을 주었다.

동문회는 이날 풍성한 잔치를 위해 각종 나물반찬, 잡채, 전, 생선, 떡, 케

익 등을 정성껏 마련했고 후원자인 이명자 동문은 스테이크, 밥, 과일, 음료, 와인 등을, 임현민(공대 84) 동문의 부인은 직접 담근 감칠맛나는 김치를 가져왔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함께 '징글벨', '고요한밤 거룩한밤' 등 신나게 캐럴을 부르는 Sing-along 시간을 가졌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이정관 회장이 마련한 팀대항 퀴즈 대회도 열렸다. 우승 팀 전원에게는 동문회에서 준비한 상품을 수여하였다. 하주홍(경영대 77)

동문은 솔로 공연으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불러 감동의 박수와 함께 넓은 파티 공간을 낭만으로 가득 채웠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석자가 이제선 회장의 음향 디자인에 맞춰 신나는 댄스 타임을 즐겼다. 송년회를 위해 결성한 'SES 댄스그룹' (S-서인숙, E-이명자, S-송은주)이 'Feliz Navidad'에 맞춰 준비한 라인댄스 안무를 선보이며 흥겨운 성찬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글=박한규(공대 91)·사진 최현주(공대 89)



지난해 12월6일 팔로알토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송년파티에 참석한 동문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9학번부터 2016년까지 동문 70여명 송년 파티

북가주 지부

북가주 동문회(회장 김범섭 · 공대79)는 지난해 12월 6일 팔로알토에 위치한 Westin 호텔에서 70명 이상의 동문

이 모여 송년파티를 가졌다. 올해는 특히 49학번부터 2016학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지역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타크루즈까지, 그리고 이스트베이, 사우스베이 등 각지에서 동문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

라 멀리 보스턴에서 방학을 맞아 온 동문까지 함께하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참석 인원 전원에게 기념품을 선물했고 경품과 빙고게임의 푸짐한 상품들은 송년 파티 분위기를 한결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음대 동문들의 공연

과 까투리 무용단의 부채춤, 그리고 연이은 가라오케 노래 경합은 파티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하여 동문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동문들은 새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송년파티를 마무리하였다.
글=최승희(사회대 81·편집위원)



지난해 12월 6일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는 16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의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를 치렀다.

“함께해서 더 따뜻” 뉴욕 동창회 송년의 밤 성료

뉴욕 지부

160여 명 동문 · 가족 참석해 뜨거운 열기
고품격 클래식 연주에 흥겨운 퀴즈 대항전

지난해 12월 6일 뉴저지 포트리(Fort Lee) 소재 더블트리 호텔 그랜드볼룸은 16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제47대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김병순 · 사회대 82)가 마련한 ‘2025 송년의 밤’은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 김병순 회장을 필두로 이진환 부회장(공대 83), 이창길(인문대 85), 한윤미(사대 84), 박수형(법대 99) 임원진은 두 달간 홍보와 섭외에 발 벗고 뛰었고 그 노력에 힘입어 행사장 곳곳에는 활기가 넘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동창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김정필(공대 71) 전 회장과 권정덕(의대 58) 전 이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증정했고 이영범(공대 71) 동문을 신

임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장학금 수여식은 큰 울림을 주었다. 유학생 동문 4명과 동문 자녀 3명 등 총 7명에게 각각 3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서들대학교의 이름을 잇는 미래 인재들을 뜨겁게 격려했다.

이어지는 공연에서는 음대 동문들의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졌다. 테너 박종현, 소프라노 송가은, 바이올린 진요셉, 피아노 곽예인 동문이 선사한 정성급 선율은 장내를 감동으로 물들였고,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4부 여흥 시간에는 서울대인만의 ‘스마트한 즐거움’이 빛났다. 임원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4자성어 퀴즈와 초성 잇기 대항전이 열

렸는데 4개 조로 나뉜 동문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열띤 경연을 펼쳤고, 재치 있는 답변이 터져 나올 때마다 웃음바다가 되었다.

김병순 회장은 2026년도 행사 계획을 발표하며 “뉴욕 동창회가 동문 여러분의 든든한 고향이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고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마무리된 이번 송년회는 뉴욕 지역 동문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다.
글=김정필(공대 71) 뉴욕 골든클럽 회장



이날 유학생 동문 4명과 동문 자녀 3명 등 총 7명에게 각각 3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창회 임원진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지금 우리는 히말라야 깊숙한 설산 속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 아찔한 출렁다리를 건너고 끝없는 오르막길을 걷는 멀고도 험한 길이다.

하기환(공대 63) 동문,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가다

지난 10월 20일 우리는 다시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팀원은 나를 포함해 스키협회 활동을 함께 하는 론 김, 제인 김, 하경철, 그리고 사위인 샘 김까지 5명. 카트만두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엄청난 폭동 탓에 뉴스로 본 카트만두의 모습은 불바다 그 자체였다. 시위대는 정부와 의회가 모여 있는 정부청사에 불을 질렀고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다. 주위에서는 이런 상황을 걱정했으나 계획을 미룰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이하 EBC)까지 트레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니까.

2024년 10월에 도착한 카트만두는 대홍수에 휩쓸렸다. 악화된 기상이 히말라야에서는 눈폭풍이 되었고 모든 교통편도 막혔다.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인도관광으로 바꾸었었다. 올해 네팔의 엄청난 폭동은 뉴스로 알고 있었으나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네팔 사람들이 트레커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이라는 말을 믿기로 했다.

다시 도착한 네팔에는 시위는 멈추었으나 히말라야 뉴스는 좋지 않았다. 얼마 전 눈사태가 나서 한국인도 죽고 날씨가 계속 나쁘다는 소식. 카트만두는 날씨가 좋아 도착 다음 날인 21일 루클라(Lukla)공항으로 이동했다. 루클라공항은 지금도 몇십 년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 1위를 놓치지 않는 곳. 대략 500m 정도의 짧은 경사를 가진 활주로. 자동유도 같은 장치마저 없어 조종사 감으로 착륙하는 해발 2,850m의 공항. 루클라공항 정식 명칭은 에베레스트 초등자 ‘힐러리 텐징’ 공항이다. 일주일 걷지 않으려고 탄 비행기 무사착륙에 모두 과일처럼 박수를 보낸다. 한국 시골의 버스 대합실 같은 비좁은 공항터미널은 막 도착했거나 트레킹을 끝낸 외국인들 그리고 등짐 짊어질 일거리를 찾아 나왔을

네팔 불안했지만 ‘미룰 수 없던’ 여행사가르마타 공원 관문 지나 히말라야로 아찔한 출렁다리 건너 끝없는 오르막길

포터들로 미어터질 듯 했다.

그런데 우리 짐 2개가 오지 않았다. 2시간이나 기다려도 짐이 오지 않기에 대행사에게 말하고 출발하기로 했다. 북새통 공항을 빠져나와 걷는 루클라 마을이 오히려 산뜻하다. 돌을 깔린 길은 깨끗했고 길옆으로는 음식점과 장비점이 즐비했다. 오토바이와 릭샤로 혼란스러운 카트만두 타벨 거리에 비하면 오히려 여기가 더 깨끗해 보였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에 파상 라무(Pasang Lhamu)의 아치가 보인다. 여성 셰르파 파상 라무. 그녀는 1993년 네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그러나 하산 도중 탈진한 동료와 비박하다 함께 숨졌다. ‘네팔의 별’이란 별명과 함께 카트만두 중심가에도 파상 라무 동상을 세워 놓았다.

마니석 옴마니밋메움
첫날은 루클라에서 3시간 정도 거리

인 팍딩(Phakding · 2,652m)까지. 내리막길 트레킹 시작부터 6,000m급 설산이 보일 만큼 날씨가 좋았다. EBC 트레킹을 계획하며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 루클라공항, 고산병, 그리고 나이. 우리는 나를 철저히 준비했다. 고산증 약을 챙기고 음주와 샤워를 금지하고 천천히 움직일 것을. 그리하여 만든 구호가 ‘팀원 중단 한명도 고산증에 걸리지 않는다’ 였다. 결과론적이지만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달랐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가 만 77살. 평생 스키를 타며 거친 야외활동에 잘 적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번에도 체력이 따라 줄까. 걱정스럽다.

민감한 사람은 백두산보다 높은 루클라 출발부터 고산증을 느낀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스키클럽 멤버들 답게 미국 고산 스키장에서 고소훈련이 된 덕분일 것이다. 오늘 산행은 짧기에 일정에 여유가 있었다. 길가에는 돌

에 옴마니밋메움 불경을 새긴 마니석이 많이 보인다. 납작한 돌들에 불경을 적어 탑을 만들었다. 알 수 없는 글자의 티베트 불교 마니석이 우리 눈엔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보인다. 네팔은 힌두교가 국교였다. 지금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힌두교도이고 불교도는 소수이다. 우리가 걷고 있는 지역을 콤부 히말라야라고 부른다. 티베트에서 넘어온 셰르파족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티베트 불교를 믿는 것이다.

하기환 동문의 여행기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하기환 동문께서 생생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여행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창회보에 모두 담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미주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에 원문 전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장문의 투고 글은 회보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 전문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원문 그대로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웹사이트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활주로는 500미터로 짧은데다 경사도 저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꼽히는 루클라공항 모습. 남체 바자르로 가는 길목에서 하기환 동문이 설산을 배경으로 '찰칵'. 고락셉에서 3시간 걸려 힘겹게 도착한 EBC. 계곡은 온통 빙하로 가득하고 뒤로는 설산 고봉이 인상적이다. 하기환 동문이 EBC에 함께 오른 일행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고

서울대 뉴욕 북클럽(대표 신응남)은 지난 11월 13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열고, 연암 박지원이 1780년대 쓴 ‘열하일기’와 김훈 작가의 2007년 출간작 ‘남한산성’을 읽고 토론했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 정조 시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사상가로, ‘열하일기’는 그가 청나라 건륭황제의 칩순을 축하하는 사절단 일원으로 열하를 다녀온 후 여행 기록을 토대로 쓴 작품이다.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생존과 도덕, 정치적 선택을 섬세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뉴욕 북클럽 회원들은 조선 후기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두 작품을 읽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역사적 성찰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개혁을 꿈꾼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영조 13년 노론 명문가 박사 유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경서와 역사서를 섭렵하고 천문, 지리, 병법, 농업 등 광범위한 학문을 공부하며 일찍부터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30대에는 북학과 핵심 멤버인 박제가, 이덕무 등과 교류하며 북벌 이데올로기에 맞서 북학의 가치를 내걸었다.

『열하일기』

“형부(재판소)를 지나며 재판을 구경했는데, 따귀형이라는 형벌법을 알게 되었다. 돌아가는 길에는 참외를 파는 노파(홍정의 달인)에게 속아 참외값을 뒤집어쓰는 경험도 했다.”

연암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1780년,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의 만수절(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단 수행원으로 한양을 떠나 6개월간 열하까지 다녀온 경험이다. 압록강을 건너 북경(연경)을 거쳐 건륭제의 하계 휴양지 열하까지 약 5천리에 달하는 대장정을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다.

첫 장 <도강록(渡江錄)>에서는 의주를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 요양까지 15일간의 여정을 다룬다. 김해암(의대 52) 동문이 요약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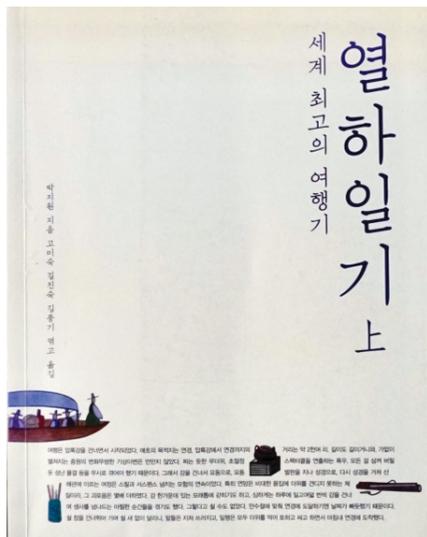
글에서 연암의 품격을 보여주는 대목은 단연 그의 행장이다. 연암의 휴대품은 매우 단출했다. 말 안장의 두 주머니에는 왼쪽에 버루 하나, 오른쪽에 거울, 붓 두 자루, 떡 하나, 작은 공책 네 권, 여정 거리를 기록한 두루마리뿐이었다. 당시 사신단은 황금, 진주, 인삼 등 금지품을 은밀히 가지고 가는 일이 흔했으나, 연암은 절제와 품격을 지켰다.

두 번째 장 <성경잡지(盛京雜識)>에서는 십리하부터 소흑산까지 327리 5일간의 기록이 나온다. 신응남(농대 70) 동문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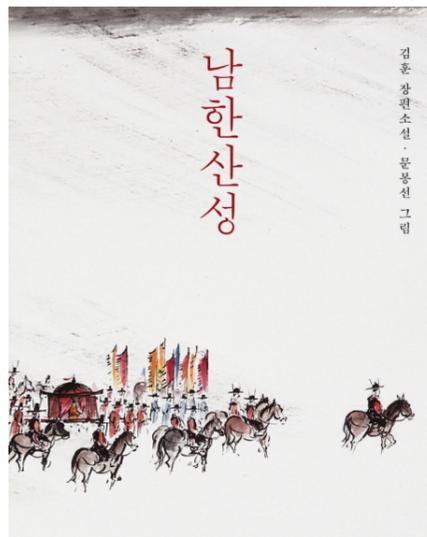
심양에서 연암은 몽골인들의 모습과 벽돌을 신고 이동하는 수레, 인간과 자연의 긴장 관계를 관찰하며 청나라 사회를 세밀하게 기록했다.

그들은 코가 우뚝하고 눈이 깊숙하다. 험상궂고 날렵하며 사나운 모습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다. 아리강을 지나 성안에 들어가니 변화가 펼쳐졌다. 형부(재판소)를 지나며 재판을 구경했는데, 따귀형이라는 형벌법을 알게 되었다.

돌아가는 길에는 참외를 파는 노파(홍정의 달인)에게 속아 참외값을 뒤집어쓰는 경험도 했다. 십리하를 떠나 심



서울대 뉴욕 북클럽 회원들은 지난 11월 13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열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고 토론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김훈의 '남한산성' 책 표지.



양의 드넓은 벌판에 이르렀다. 천하의 평온함과 위급함은 늘 이 요양의 넓은 들에 달려 있었다. 천하의 병력을 기울여 서라도 이곳을 지켜야 했다.

이어 셋째 장인 <일신수필(駟迅隨筆)>은 송몽길(대학원 69)동문이 정리 발표했는데 요동 신광녕에서 산해관까지 560리 여정을 통해 중국 문명의 경계를 직접 체험하며, 백성의 삶과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을 드러낸다.

길목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그는 길가에서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며, “백성의 얼굴에는 고달픔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이는 당시 청나라 농촌의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느낀 대목이다.

드디어 산해관에 도착한 박지원의 눈앞에는 웅장한 성루와 성벽, 그리고 드넓은 평야가 펼쳐졌다. 그는 감탄하며 “천하의 기운이 이 문에 다 모였다”고 기록했다. 이곳에서 그는 중국 문명의 크기와 자신의 나라 현실을 동시에 떠올리며, 겸손과 자각의 글을 남겼다.

“조선의 선비는 종이 위의 글만 배우나, 중국의 선비는 세상의 글을 배운

다.” 그는 학문이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백성과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깨달음은 훗날 그의 사상, 즉 실사구시의 기초가 되었다.

넷째 장인 <관내정사(關內程史)>는 김명혜(미대 78) 동문이 요약 발표했는데 산해관에서 연경까지 640리의 여정을 다루며, 소중화 사상과 조선 사대부의 역사관, 백성과 정치에 대한 성찰을 기록했다.

7월 28일 갑진일에는 고려보를 지났는데, 이곳은 병자호란 발발 이듬해 포로로 끌려 온 고려인들이 이룬 마을이다. 사신들이 당도하면 대접을 받고 고국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질되어 하인들이 도둑질을 일삼자, 사람들은 서로 바가지를 씌우거나 선물을 요구하며 원수처럼 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마지막 장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에서는 연경에서 열하까지 420리 여정을 다루며, 열하의 만수절 축하 연회 장면을 생생히 묘사한다. 양군식(음대 82) 동문이 발표했다.

『남한산성』

“그해 겨울, 갈 수 없는 길과 가야 하는 길은 포개져 있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임금은 삼전도에서 항복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다.”

열하는 황제의 행재소(여름철 거처하는 곳)다. 연경에서 동북쪽으로 420리에 있으며, 만리장성에서 200여 리 떨어져 있다. 사신단은 갑작스레 열하로 가라는 분부를 받아 밤낮을 달려 닷새 만에 간신히 도착했다.

갑인일인 8월 8일, 열하에 가까워지자 사방에서 조공 행렬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을묘일 8월 9일 사시에 드디어 열하에 들어 태학에 머물렀다. 산골길만 다니다가 열하에 들어서자, 궁궐이 장려하고 좌우로 시전이 10리까지 뻗어 있어, 실로 장성 밖의 큰 도회지라 할 만했다.

이날 건륭제는 음식을 세 차례나 내리고, 사신들에게는 백자로 만든 차항아리 하나, 찻잔과 받침, 실로 엮은 빈랑 주머니 하나, 칼 한 자루, 자양차가 담긴 주석 항아리 하나씩을 하사했다. 그렇게 건륭제의 만수절 연회는 깊어갔다.

‘열하일기’에 이어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인조 14년(1636년), 홍타이지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 조선에 대해 항복을 요구했으나 척화론이 대세인 조선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청의 침략으로 강화도가 함락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성 안에서는 눈보라와 추위, 굶주림 속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인조와 신하들은 항전과 항복 사이에서 극심한 윤리적·정치적 갈등을 겪는다.

“그해 겨울, 갈 수 없는 길과 가야 하는 길은 포개져 있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임금은 삼전도에서 항복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다. 조선은 청의 신하가 되었고, 주권은 능욕당했다. 치욕은 크고 깊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어야 하는 것이 삶의 길이라면, 견딜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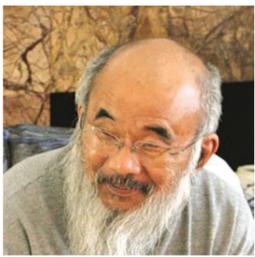
뉴욕 북클럽 회원들은 내년 봄 2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로 논의한 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다시 떠올리며 제10차 정기발표회 마감했다.

정리=신응남(농대 70) 북클럽 대표



윤보 김기창의 '군마도',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천마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수렵도'.

2026년은 말의 해, 말처럼 힘차고 건강하기를



장소현 (미대 65)
시인 겸 극작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말띠의 해, '붉은 말의 해'다. 올해는 특히 불의 기운이 강한 해로 여겨진다고 한다.

말은 예로부터 속도, 힘, 성장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왔다. 올해 우리의 삶도 말처럼 힘차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올해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기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관한법령'(미 군정법령 제102호)에 의하여 기존의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과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사립),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의 전문학교와 전문학교급 학교들을 통합하여 국립종합대학으로 설립되었다.

메인캠퍼스인 관악캠퍼스는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1975년에 조성되었다. 말과 서울대학교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 80주년을 맞는 모교가 올해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간들의 오랜 친구인 말

말(馬)은 고대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온 중요한 동반자였다. 말의 조상은 지금으로부터 4,500-5,500만 년 전에 존재했고, 가축으로 길들여진 이래

로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온 동물 중 하나로 사람을 위해 많이 봉사해 왔다. 말은 오늘날의 자동차나 기차에 해당하는 교통과 운송,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일반화된 뒤로는 경마장이나 취미생활인 승마장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는 등 인류 역사와 관련이 깊은 동물이다. 여러 점에서 소나 개, 돼지, 닭 같은 가축과는 달리, 말은 인류 역사와 문명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말은 사회성이 강하고 서열에 따라 생활하며, 풍부한 감정을 지니고 있고, 환경에 적응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동물이다. 말의 지능은 원숭이, 돌고래와 같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 때문에 말을 탄 기사가 사자를 사냥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쟁에도 동원되었다.

★말이 등장하는 신화

말은 동서양의 신화에 중요하게 등장한다. 천마(天馬), 비마(飛馬), 용마(龍馬) 등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서양의 그리스 신화에는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천마 페가소스가 등장한다. 페가소스는, 영웅 벨레로폰이 불뿔을 괴물 키마이라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천마다. 또 반인반수, 유니콘 등으로 신격화된 말도 활약한다.

중국 삼황오제(三皇五帝) 신화에도 용마(龍馬)가 등장한다. 용마는 하늘을 나는 용,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과 능력을 아우르는 천마(天馬)다.

한국에서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신화에 등장하는 말이 대표적이다. <삼국유사>는 박혁거세 탄생 신화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기원전 69년 3월 초하루 6부 촌장들이 각각 자제들을 데리고 다 함께 알천 독에 모여 의논했다. …(중략)…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

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웬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6부 촌장들이 달려가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말은 사람들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알을 쪼개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에서 씻기자, 아이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어 천지를 진동케 하고 해와 달이 맑고 밝았다. 그래서 이름을 '혁거세왕'이라 하고 왕위의 칭호는 '거슬한'이라고 했다.”

구체적 유물로는 신라 천마총(天馬塚)의 말 그림이 유명하고, 김유신묘에 두른 십이지 호석 가운데 말(午) 등 말에 관련된 각종 유물이 발굴되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수렵도>도 소중한 유물이다.

★역사의 중요 장면에 등장하는 말

말은 지능이 높은 편에 속하는 동물이며 사람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안다. 전쟁터나 호랑이 같은 맹수 사냥을 갈 때에도 자신의 등에 태운 사람을 믿고 적군이나 맹수를 보고 도망가지 않는다. 칭기스칸의 말, 나폴레옹의 말, 알렉산더 대왕의 말, 그리고 중국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적토마, 천리마 같은 명마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김유신 장군의 애마도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 개척에서도 말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할리우드 서부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역마차, 기병대, 카우보이…

현대의 전쟁에서도 사람이 하기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말이 대신 맡아 목숨을 걸고 수행하기도 했다. 오늘날 로봇이 하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의 영웅이 된 말 레클리스(Reckless)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포탄 수송 등 험악한 공을 세우고 하사 계급까지 받았다. 레클리스는 훈장을 받고 1960년에 은퇴했으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서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예술작품에 그려진 말

오랜 세월 인간과 친숙한 동물이다 보니 말은 예술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서부영화의 말들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는 말은 영화 <벤허>의 전차 경주 장면의 말들이다.

철학적인 영화로는 헝가리의 거장 벨라 타르 감독의 <토리노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부와 그의 딸 그리고 늙은 말의 이야기를 흑백영화로 그린 이 작품은 철학자 니체를 호명하며 형이상학적 문제에 접근하고, 인간의 존재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사색한다. 벨라 타르는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참고로, 202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헝가리 작가 크리스너호르키에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를 벨라 타르 감독이 상영시간 7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영화화했다. 연극 <에쿠우스>도 말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미술작품으로는 화가 로트레크, 드가 등이 경마장이나 곡마단의 말을 즐겨 그렸고,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에 등장하는 말도 강렬하다.

동양화에도 말을 그린 명작이 많다. 여기 소개하는 윤보 김기창의 <군마도>도 그런 작품 중의 하나다.

올해 우리의 모두 삶이 말처럼 힘차고 건강하게 도약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방향 없이 무작정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아메리칸 원주민(인디언)의 지혜를 떠올린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이는 행여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라고 한다.

올해 우리의 모두 삶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기를!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애마 부케팔로스. 부케팔로스는 수많은 전투에서 알렉산더와 함께 했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 그림에 나오는 나폴레옹과 그의 애마 마랭고. 말을 타고 달리며 몽골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

흰 모시 한복을 입은 쪽진 머리의 지휘자-나의 어머니



조중행 (의대 63 · 시카고)

얼마 전 어머니의 35번째 기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35년— 여전히 ‘엄마’라는 단어가 더 편하지만, 이제는 그 크기를 짐작하며 ‘어머니’라 불러 봅니다.

1923년 어머니는 숙명여중을 다니던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한일합방 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신 내 증조부와 집안 어른들의 결정으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아버지에게 가마를 타고 시집오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아한, 조그만 깨끗한 얼굴의 여인. 세상이 달랐다면 아마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평생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모시와 옥양목 두루마기, 전통 한복만을 고집했던 지극히 작고 고루한 양반댁 여인. 그 단정한 뒷모습은 지금 손주를 데리고 걷는 내 딸의 뒷모습 속에서 문득 되살아나곤 합니다.

한문에 능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여러 제사 때 지방을 직접 쓰셨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도 항공엽서로 그



조중행 동문의 어머니, 숙명여중 시절 모습. 오른쪽은 조중행 동문이 그린 수채화 ‘어머니의 Breakfast’. 조 동문은 자신과 누이들이 미국으로 떠난 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숙명여고 로고가 새겨진 커피잔에 커피를 드셨다고 전했다.



궁체의 한글 편지를 자주 보내셨고, 지금도 잉크 향기 속에 배어 있던 그 절제와 정성은 내 서랍 속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의전을 졸업(1930)한 소아과 의사로, 늘 일에 쫓기시던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그녀의 삶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이었습니다. 여섯 남매의 교육, 결혼, 분가, 매달 찾아오는 4대 제사, 13명 대가족의 살림, 선대로부터 내려온 선영의 관리까지 집안의 모든 재정과 대소사는 그 작은 체구의 손에서 냉철하게 관장되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속 ‘선택’이 그러했듯, 그녀는 전통적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현대적 경영인의 권한을 누린 여인이었지요. 다시 태어나도 남자의 고단한 생애보다는 가정을 관장하는 여자의 삶이 낫다고 담담히 말하던, 자신의

선택을 긍정적인 강한 의지—그 말은 어머니의 신념이자 생애의 이력서였고, 고난 속에서의 깨끗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여섯 남매 중 넷을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의학, 물리학, 화학, 약학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른 결혼으로 형제 중 자신만 못 이룬 고등교육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사색적인 기억은 70년대 미국 서부의 버클리 캠퍼스에서였지요. 가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던 70년대 말 어느 날,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던 장손녀와 교정을 산책하시던 어머니를 본 미국 학생들이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프린세스냐고.”

흰 모시 한복과 쪽진 머리, 하늘색 고무신. 그 모습은 낯선 땅 위의 한 동양

의 프린세스였고, 전쟁과 격동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내면서 끝내 집안을 지켜낸 한국관 ‘스칼렛 오하라’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 여든 살 생애의 위중한 그 순간, 마지막으로 정성껏 써 놓았던 한글 궁체의 반야심경. 덧없음 속에서도 진실을 구했던 그녀의 마지막 성찰이었을까? 그렇게 심곡서원 옆 한양 조씨 댁 용인의 흙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 꿈속에서도 희미해진 어머니 모습은, 고단함 대신 한없이 깨끗한 흰 모시 옷 같은, 빛나는 지휘자의 삶으로 나에게 기억됩니다.

정말이지, 돌이켜 보면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멋진 생이었지요.

김학천의 세상만사



김학천 (차대 71 · 남가주)

서정주 시인의 시 ‘자화상’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 바람처럼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이 자신의 삶을 흔들고 만들어왔다는 의미다. 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고 운명과 우연, 그리고 시대의 격랑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말일 것이다.

우연찮게도 꼭 23살에 조국 알제리를 등지고 프랑스로 향해야 했던 젊은 이가 있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로 노래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내 집을, 조국을 떠나야 하네’로 시작하는 노래, ‘안녕, 내 나라(Adieu mon pays)’.

이 노래로 상송가수로 사랑받게 된

앙리코 마샤스(사진). 그는 무려 한 세기가 넘도록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조국의 독립전쟁 속에서 어머니와 누이를 잃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직의 삶도 무너진 채 흠뻑으로 난민선에 몸을 실어야 했다.

이 후 가수로 변신한 그는 자신이 처한 경험에서 나온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노래에 담았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소렌자라’, ‘사랑하는 마음’, ‘지중해의 장미’가 그의 노래들이다.

그리고 마흔을 훌쩍 넘겼을 때 ‘녹슨 총’을 내놨다. ‘어느 날인가 한 병사가 집이 있는 마을로 달려갔지요 / 이를 위해 어두운 수풀 속 어디엔가 녹슨 총을 버렸어요 / 누가 사랑보다 전쟁을 더 좋아하겠어요 / 녹슨 총보다, 더는 쓸모없는 녹슨 총보다 멋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남긴 상흔이자 기억으로 남은 ‘녹슨 총’. 흔히들 총이 녹슬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병사가 숲에 버린 ‘녹슨 총’이라고 노래한 거다.

서정주의 바람은 그에게는 피할 수 없었던 처참한 현실이었던 셈이었고,

앙리코 마샤스의 ‘녹슨 총’



그의 삶을 고단하게 이끌었던 그 바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밥 딜런의 노래에서 바람은 ‘모든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평화와 정의, 인간이 풀지 못하는 갈등,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길까지.’ 그러나 그 답은 허공에서 맴돈다.

하지만 서정주가 바람 속에서 성장한 시간, 마시아스가 조국을 떠나게 된 경험한 역사적 바람, 딜런이 노래한 바람 속에서 묻는 질문은 다 같은 흐름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바람 속에 모든 해답이 숨

어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 흔들리고, 고민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역사와 우연, 바람이 스며들어 흔들고, 만들어주며, 때로는 해답을 전해준다는 얘기다. 해서 삶과 예술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바로 그런 역사와 아픔, 선택과 우연 속에서 빛어진다고들 하는가 보다.

그렇게 볼 때 스물세 해, 23세, 그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외부의 힘, 역사, 그들이 맞부딪친 우연이 만들어낸 고난한 삶의 이야기들인 셈이다. 그리고 여전히 수풀 속에 남아 있는 녹슨 총과 바람과 함께 그 스물세 해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흔적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 거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다해도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기울여 들으면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의 노래 ‘녹슨 총’처럼. 해서 유엔은 그를 ‘평화대사’로 임명하고 ‘평화의 가수’라는 호칭도 수여했다.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그는 아직도 노래하고 있다.

조재성의 도시 이야기



조재성 (공대 건축학과 77)

코리아타운,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LA 코리아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의 모습. 코리아타운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도시의 재생은 콘크리트의 기술이 아니라, 기억의 윤리에서 시작된다.

할리우드는 '환상의 중심'으로, 베벌리힐스는 '부의 정원'으로 완성됐다면,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미완의 문장'으로 살아 있는 기억의 도시다. 불완전함 속의 생명력, 그 불안정함 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도시의 인간적 열골이다.

낮에는 화려한 간판이 거리를 덮지만, 밤이 찾아오면 그 아래 숨어 있던 기억들이 별처럼 쏟아진다. LA라는 거대한 별자리 속에서 할리우드는 신화의 중심이고, 베벌리힐스는 완성된 궤도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흔들리며 숨쉬는 도시의 심장이다. 이곳은 이민자들의 언어와 냄새, 노동의 땀과 음악이 뒤섞여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기억의 실험실이다.

1992년 4월, 로드니 킹 사건 이후 불길이 도시를 삼켰을 때, 코리아타운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커뮤니티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날의 화염은 단지 상점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누가 도시의 일부로 기억되고, 누구는 잊히는가"라는 냉혹한 질문을 남겼다. '루프탑 코리아'이라 불리는 층을 들고 옥상에 선 상인들의 절규는 단순한 폭동의 장면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기록되는가를 드러내는 비극의 시였다.

'은막의 꿈'을 판매하는 할리우드는 신화로, '오리지날 명품'을 과시하는 베벌리힐스는 브랜드로 자신을 완성했다. 부족함이 없는 도시는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설 여백이 없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은 언제나 미완의 상태로 존재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도시의 생명이다. 실패와 시도, 노동과 꿈이 뒤섞인 문장속에서 다양한 피부와 언어가 어색하지만 아름답게 공존한다. 완결을 거부한 도시, 그 불안한 리듬이 오히려 인간의 온기를 품고있다.

도시는 인간이 쓴 가장 긴 산문이지만, 때로는 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계획은 기능을 우선하며 효율의 도면에만 갇혀 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민자의 체온, 라틴 음악의 리듬, 오래된 노포의 냄새, 포장마차의 김이 사라져가는 자리에 유리 타워만이 솟구친다. 메트로 역 주변은 럭셔리 고층아파트로 바뀌며, 자본의 속도가 공동체의 숨결을 압도한다. '이민의 서정'은 '투자의 논리'에 밀려 희미해진다.

도시계획학자 트리디브 배너지(USC)가 말했듯, LA는 '불확정성의 도시'다. 코리아타운은 그 불확정성의 중심에 있다. 서류미비자, 다언어의 혼종, 낮과 밤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회복력은 닫힌 도시가 잃은 '우연의 윤리'를 되살린다. 할리우드가 스크린의 도시라면, 코리아타운은 아직 끝나지 않은 K-드라마다. 예측 불가능하고, 그

“누가 이 거리에 남을 것인가? 도시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밤이 되면 코리아타운은 젊은이들로 붐비며, 낮보다 더 밝게 빛난다.”

만큼 살아 있다.

재개발의 압력에도 오래된 거리의 숨결을 간직한 서울 익선동의 밤은 매일 젊은 인파가 모여들어 흐린 불빛 아래 주점에 앉아 새로운 감각을 피운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새것의 반짝임보다 오래된 한옥의 온기를, 브랜드의 화려함보다 서로의 이야기가 스며드는 낮은 공간을 사랑한다. 그 거리에서는 직업과 연봉, 출신 배경이 대화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향기와 언어가 섞이는 순간을 즐긴다. 그들은 알고 있다. 도시가 잃은 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의 품격이라는 것을.

밤이 되면 코리아타운도 서울 익선동과 다르지 않게 젊은이들로 붐비며, 낮보다 더 밝게 빛난다. 코리아타운 6가에서 백인, 라틴, 흑인,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백열전구 조명 아래서 웃고 춤추는 장면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가 스스로를 기억하는 방식, 즉 '기억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의식이다.

진정한 재개발은 낡음을 지우는 파괴가 아니라, 기억을 다시 배열하는 예술이다. 건축이 아니라 존재의 윤리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도시가 살아 있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기억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 기억의 리듬이 이어질 때, 도시는 다시 숨을 쉰다.

코리아타운이 할리우드나 베벌리힐스를 넘어서는 길은 더 높은 타워나 더 밝은 조명이 아니라, '공존의 기술'을 세우는 일이다. 정체성 없는 번영은 허무로 사라지고, 번영 없는 정체성은 소외로 끝난다.

코리아타운의 내일은 건물과 길, 사람과 시간이 서로의 의미를 다시 짓는 순간에 열린다. 그때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존재의 이야기를 공간으로 번역한 문장이 된다.

도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취향대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타인의 리듬을 배우는 일이다. 코리아타운의 미래는 설계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펼쳐는 맥시칸계 노점의 활력, 저녁 노을 아래 벤치의 대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눈망을 속에 있다.

“누가 이 거리에 남을 것인가?” 도시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기억과 공존이 하나의 리듬이 될 때, 내일의 코리아타운은 비로소 인간의 얼굴을 할 것이다. 이미 우리 곁에 내일은 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GSK LLP

강호석 회계사

(상대 81, 전 미주동창회 사무총장)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이진형 동문의 뇌 이야기

만성 통증, 치료의 열쇠는 '뇌 회로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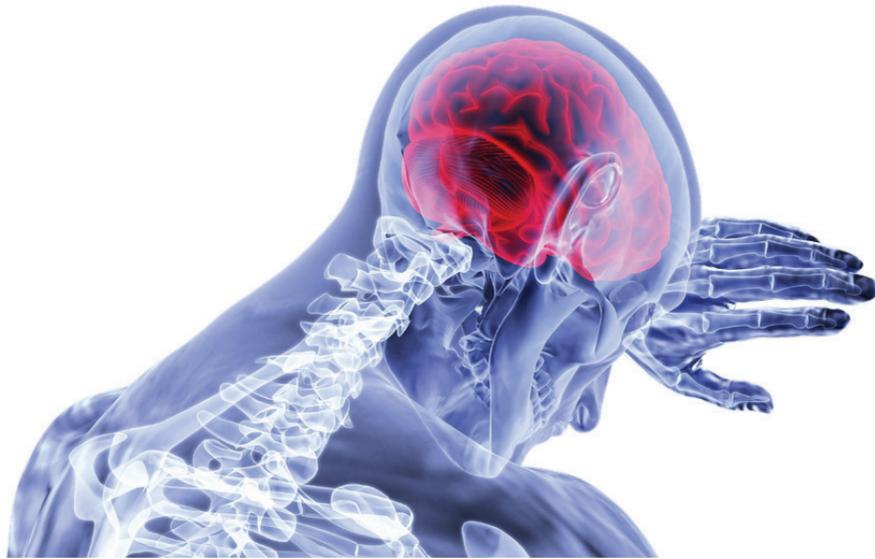


이진형 (공대 전기공학과 95)
스탠포드대 생명공학과 교수

뇌는 신체의 많은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뇌는 통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통증학회는 통증을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통각수용성 통증'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통증으로, 비신경계 조직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피부, 근육, 뼈, 관절 등의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해 찌시거나 날카로운 느낌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다. 위, 장과 같은 내부 장기의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둔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도 이에 포함된다. 손상된 조직에 대한 정상적 반응으로 통증 수용체가 활성화돼 발생한다. 손상 원인이 사라지면 통증도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신경병성 통증'은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이다. 타는 듯한 느낌, 저림, 찌릿거림 등 불쾌한 감각을 유발한다. 가벼



운 접촉에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자극 없이도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당뇨병성 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좌골신경통 등이 대표적이다. 당뇨병이나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거나, 허리 디스크 등으로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한다.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환자들이 없어진 신체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현상인 '환지통'도 이에 해당한다. 뇌가 상실된 신체 부위로 보낸 신호에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사라진 신체 부위에 맞춰 신호 전달 체계를 새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신경 신호를 잘못 해독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유형의 통증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017년 국제통증학회는 명확한 조직이나 신경계 손상, 질병 없이 나타나는 만성 통증을 '침해수용성 가소성 통증'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 변화해 작은 자극에도 민감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섬유근육통은 만성적으로 전신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통증 신호에 만성적으로 민감해져 발생한다고 추정되며 피로감, 수면장애, 인지장애 등을 동반한다. 이 밖에도 방광통증증후군, 만성 요통 등

이 이에 속한다.

이렇듯 뇌신경계의 직접적 손상이나 신호 전달 체계의 오류는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뇌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신체 보호이며, 이를 위해 통증을 느끼는 기능은 필수적이다. 손이 다치거나 타고 있거나 위험에 노출되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주요 이유도 통증을 통해 신체 이상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을 관장하는 시스템 자체에 손상이 가거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 만성 통증이 오히려 하나의 장애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어렵게 한다.

피부나 근육 등 신체 부위가 열이나 강한 물리적 자극을 받으면 감각신경이 활성화돼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이 신호는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된다. 뇌의 시상에서 신호를 받아 감각중추로 전달되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강한 통증 신호는 통증 회로를 따라 전달되고 약한 감각은 위치감각 회로를 따라 전달된다. 말초신경, 척수, 뇌에 걸린 이러한 통증 신호 처리 신경망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 기능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는 것이 필수다.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통증을 관장하는 뇌 회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 통증 관리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겨울을 함께 걷는 사랑

겨울, 특히 첫눈이 내릴 즈음이면 어김없이 귓가에 맴돌며 감상에 잠기게 하는 멜로디가 있다. 영화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 'Snow Frolic(눈장난)'이다.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공원에서 "나 잡아봐라" 하며 뛰놀던 연인의 모습은, 시린 사랑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긴 영화사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다. 실제 촬영 당시 공원에 눈이 쌓일 틈이 없어 인공 눈을 사용했다는 일화가 전해지지만, 진위와 상관없이 그 장면이 남긴 여운만은 분명하다.

에릭 시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불치병에 걸린 제니를 향한 올리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렸다. 영화의 첫 문장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스물다섯의 나이로 죽어간 그녀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름답고 현명했으며 모차르트와 바흐, 비틀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했다."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딸 제니와 명문가 상속자 올리버.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내린 첫눈처럼 눈부시게 펼쳐질 것만 같던 두 사람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춰 선다. 1970년대를 청춘으로 살았던 세대에게, 센트럴파크의 눈

장난과 그 위에 흐르던 음악은 그것만으로도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에 충분하다.

'러브 스토리'가 반세기가 넘도록 생명력을 지닌 이유는 아마도 단 한 줄의 대사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절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의 명대사 10선에 빠지지 않는 이 문장은 시대를 넘어 회자됐다. 비틀스의 존 레논은 이를 패러디해 "사랑은 15분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오노 요코와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사회는 계층의 벽이 높아, 두 사람의 결합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오늘날엔 진부한 설정으로 보

일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작품이 엘 고어 전 부통령 부부의 실제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명문가 출신의 고어와 달리, 아내 티퍼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소설 속에서 두 사람은 올리버와 제니로 재탄생했다.

현실의 '러브 스토리'가 가장 극적으로 연출된 순간은 2000년 민주당 전당대회였다.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고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생중계 앞에서 티퍼와 진한 입맞춤을 나눴다. 많은 이들은 제니가 올리버의 품에 안겨 생을 마감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환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몇 줄의 이메일로 이별을 알렸을

때 세상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어쩌면 러브 스토리는 고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 에릭 시걸 자신의 고백이었던지도 모른다. 15년 전 이맘때쯤, 그는 오랜 파킨슨병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이는 아내 캐런이었다. 25년 동안 자신을 간호해온 아내에게 늘 미안함을 느꼈던 시걸에게, 캐런은 영화 속 그 대사를 조용히 건넸다고 한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어는 정치인답게 사랑마저 연출했는지 모른다. 사랑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 그럼에도 '러브 스토리'의 여운이 오래 남는 이유는, 사랑이란 결국 믿음과 정직,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책임 위에 서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동문들의 사별 소식이 부쩍 잦아졌다. 화려한 말이나 극적인 장면보다, 남은 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일 것이다. 첫눈처럼 잠시 스쳐 가는 감정이 아니라, 긴 겨울을 함께 견뎌내는 동행. 그것이 우리가 '러브 스토리'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다시 되새겨야 할 사랑의 얼굴이 아닐까. <편집고문>



동문 30명 '세계 상위 1% 과학자'에 올랐다



동문 30명이 국제 학술정보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가 11월 13일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이하 HCR)'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총 76명의 과학자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문 다수가 화학 및 의

(의학82) 충북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이상엽(화학공학82)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김진수(화학83) KAIST 공학생명학대학원 교수, △김현욱(잠사83) 세종대 바이오산업자원공학과 교수, △현택환(화학83)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특임석좌교

국가 순위는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이 267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고, 중국(1406명)이 2위, 영국(570명)·독일(363명)·호주(312명)·캐나다(227명)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올해 76명이 이름을 올려 10위권 밖에 머물렀고,

일본(88명)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순위에서는 중국과학원(CAS)이 258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하버드대(170명), 스탠퍼드대(141명), 칭화대(91명), MIT(85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16명으로 50위 밖에 머물렀다. 김남주 기자

클래리베이트 2025 최고 연구자 의학·화학 전공자가 다수 차지

학 전공자였다. HCR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를 뜻하는 단어로, 클래리베이트는 매년 자사의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를 활용해 해당 연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Highly cited papers)을 기준으로 분야별 연구자를 선정한다. 클래리베이트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및 지역 내 1300여 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6868명(총7131건)의 연구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HCR에 선정된 동문들은 소속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용되는 연구를 축적해왔으며, 각자의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학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광수(응용화학67) UNIST 화학과 연구교수, △방영주(의학73)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강윤구(의학75) 의정부울지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종석(의학78)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상위(의학79)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백성욱(계산통계82) 세종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성영은(공업화학82)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이기형

수, △최원용(공업화학84)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석학교수, △선양국(대학원85)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심원준(해양8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자문위원, △천종식(미생물86) CJ바이오사이언스 고문, △김동완(의학89)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석상일(대학원89) 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 △오도연(의학91)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범준(응용화학94)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서장원(섬유고분자94)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김대형(응용화학96)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최장욱(응용화학96)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류영렬(조경97)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노준홍(재료99)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안춘기(전기·컴퓨터02)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영찬(의학07)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면역내과 교수, △남대현(재료07)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조승우(동물생명11졸)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하성민(대학원13) 서울대 박사.<학번 순> 한편 올해 '2025 최고 연구자(HCR)'

제28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 추천 공고

총동창회는 매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분 또는 단체에 '관악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28회 관악대상 후보자(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 추천**
 - 추천방법 : 서울대인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추천 서식에 맞추어 후보의 공적 및 주요활동 사항을 작성하여 총동창회 사무처로 제출
* 추천 서식은 홈페이지 www.snu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천기한 : 2026년 1월 31일(토)까지
-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수상자는 2026년 2월 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2026년 3월 27일(금) 정기총회에서 시상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담당자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75동 201호 (신림동)
전화 : 02-879-8208, 팩스 : 02-703-0755,
이메일 : member@snuaa.org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contact@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683,000 (as of 10.25.2025)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뉴욕-조상근 (법대 69)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 57)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 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조지아-허지영 (문리대 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김일영 (의대 65)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남가주-박종수 (수의 58)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남가주-성낙호 (치대 63)
남가주-심화섭 (약대 61)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남가주-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하기환 (공대 66)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남가주-한홍택 (공대 60)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남가주-정상진 (상대 59)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뉴욕-오인석 (법대 58)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대 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미시간-박용화 (의대 58)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북가주-전혜경 (문리대 67)

샌디에고-이민기 (공대 64)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시카고-조규승 (문리대 72)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이태영 (법대 60)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대 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 김원경 (약대 59)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故김병연 (공대 68)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남가주-故이종도 (공대 66)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뉴욕-김현중 (공대 63)
미네소타-황효숙 (사대 65)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 DC-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DC-배성호 (의대 65)
워싱턴DC-최재귀 (미대 63)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조지아-임수암 (공대 62)
텍사스-이승화 (공대 03)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대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용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운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3)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故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희영 (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철룡 (의대 61)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황해룡 (공대 52)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중률 (사대 51)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용호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8)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박현아 (공대 88)
변우진 (문리대 81)
송창원 (문리대 53)
조형준 (문리대 62)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대 65)
진성호 (공대 64)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故강영국 (수의대 67)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故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대 78)
이은상 (상대 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故서휘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대 65)
이윤주 (상대 63)
최지원 (의대 61)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성성모 (사대 67)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중민 (공대 64)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와이

故최경운 (사대 51)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김경숙 (생과70) 김경자 (미60) 김기형 (상70) 김광주 (문69)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수영 (사57)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김희창 (공64) 나두섭 (의66)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리준무 (음65) 문병길 (문61)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호현 (의52)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손학식 (공61) 송태진 (공79) 신동국 (수의76) 신건호 (법53)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채진 (문55) 임동규 (미57) 장문섭 (공69) 장윤희 (사54) 장원경 (미73)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 황 (공64) 주정래 (상65) 천동우 (공63) 채규황 (법69) 한홍택 (공60) 함승욱 (간호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황건홍 (공55)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종원 (사58)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윤영섭 (의57)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흥우 (공50) 함종금 (간66)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형무 (법69) 허영자 (약63)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형범 (문57) 이금하 (문69) 박종건 (의56) 현건섭 (공55)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텍사스 송요한 (문73) 최취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승주 (간69) 김용환 (공71) 김현주 (문61) 김정수 (문69) 민영기 (공65)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윤경순 (사61) 이덕수 (문58) 이등균 (공75)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최희수 (문67) 한의일 (공62) 홍청일 (약57) 황치룡 (문65)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정갑희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희백 (의55) 정영자 (사60) 최준한 (농58)	정평희 (공71)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58) 김현왕 (공64)	테네시 김경덕 (공75) 김현 (문리93) 권준희 (가정87) 서갑식 (공70)	텍사스 천양곡 (의63) 황명규 (공61)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 이승화 (공03)	필라델피아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종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성식 (공56) 안세현 (의62)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정덕준 (상63) 주기목 (수의68) 지홍민 (수61) 최종무 (상63)	하틀랜드 정민재 (농70)	하와이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하재청 (문67)
--	--	---	--	------------------------	--------------------------------------	--	--	---------------------------------	--	-------------------------------------	--	----------------------------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기형 (상70) 200 김상순 (상67) 300 김영배 (미61) 200 윤석철 (상60) 2,000 양은석 (음70) 2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임현 (간72) 1,0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무 (음65) 200 신응남 (농70) 1,500 조남천 (사59) 3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1,000	미네소타 강순건 (문57) 1,000 김권식 (공61) 50,000	미시간 오동환 (의65) 200	북가주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시카고 최희수 (문67) 100 서상현 (의65) 100	오레곤 박희진 (농78) 200	오하이오 정갑희 300	조지아 이종석 (의54) 100	워싱턴 DC 강길종 (약69) 500 권철수 (의68) 200 이선구 (문65) 200 정평희 (공71) 200 최재귀 (미63) 1,000	테네시 김경덕 (공75)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5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SNUAA 장학후원 워싱턴 DC 이경애 (문58) 10,00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53) 500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1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200	커네티컷 지부 후원 고유시영 (문68) 10,000	관악연대 후원 남가주 송태진 (공79) 5,000	Brain Network 후원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200	지부분담금 뉴욕 3,000 워싱턴주 800 Mountains 200 로키마운틴스 200 커네티컷 300 필라델피아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자성 (의79) 500 하기환 (공66) 1,000 김기형 (상70) 400 이승훈 (상74) 1,000 이명선 (상58) 1,000 강호석 (상81) 250 송미선 (음89) 500 서동영 (사60) 240 이종묘 (간호69) 240 서종영 (사60) 240	뉴욕 석창호 (의66)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

송미선, 음대 89

LOIS KIM
213-500-0841
loismkim@gmail.com



이제, 투자는 안전하게 하세요

Indexed Annuity & 부동산

- 시장 하락 시 원금 보호
- 지수 연동 수익 기회
- 평생 소득 옵션
- Tax-Deferred Growth
- 다양한 보너스 지급
- OC
- LA
- IRVINE

Annuity / 401K Rollover / IRA / SEP IRA
부동산 / 생명 보험 / 롱텀 케어 / 암보험 / 메디케어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뉴욕 / NY, NJ

의료/병원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옥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Hebaragi & Lemi Bus

(310)715-2400

606 West 140th Street, Gardena, CA 90248

heabus@gmail.com

www.hebaragicharter.com



Airport Transfers

We can pick-up and drop-off at any airport in the LA Area.

Group Travel

Take your group on an adventure! On a day trip to an amusement park or an overnight sight-seeing.

Over The Road

Travel out of state and see Las Vegas!

“십시일반의 정성,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하나로”



동문 한 분 한 분이 보내 주시는 십시일반의 정성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큰 힘**입니다.

동창회비 납부 및 문의 방법



동창회비 QR 코드



612-280-7589



snuaa.org



contact@snuaa.org



주소 (아래 참조)



Check payable to: SNUAA USA

서울대 미주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1,000 <input type="checkbox"/> 1/2 Size \$ 500 <input type="checkbox"/> 1/4 Size \$ 300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1년) \$ 500	<input type="checkbox"/> SNUAA 장학후원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약연대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_____ 영어 이름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현주소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록 주소 _____ 업소 전화번호 _____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Houston Fearless 76, Inc.



이명선 (상대 58)

Chairman M S LEE

203 W. Artesia Blvd., Compton, CA 90220

Email: mslee@hf76.com | www.hf76.com



자연의 깨끗함 그대로 신선함 그대로



More Products
Scan me



Taste the Excellence of Korea

이승훈 (상대 74)